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9

1. 미국 - 태양광 모듈 30
2. 카메라 모듈 38
3. Ex-Briefing 43

III. 부록 47

1. ICT 생산 통계 48
2. 2022년 7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9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6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4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5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1)

1 개요

- '22.7월 ICT 수출은 193.4억 달러(△0.7%), 수입은 132.2억 달러(16.8%↑) 기록
 - (수출) 조업일수 감소(△1.0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한 193.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7월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
 - ※ 역대 7월 일평균 수출 순위 : (1위 '22년) 8.2억 달러, (2위 '21년) 7.9억 달러, (3위 '18년) 7.7억 달러
 - 품목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늘어난 반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미국, 일본 등이 감소했으나 EU, 베트남 등이 증가

표 1-1 |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체
전세계	113.8 (3.1)	20.0 (△4.7)	6.8 (△29.2)	12.1 (△21.9)	8.8 (12.0)	193.4 (△0.7)
중국(홍콩)	63.9 (△3.2)	6.6 (△29.1)	1.9 (△34.9)	3.1 (△39.3)	0.6 (△44.5)	83.5 (△8.2)
미국	8.2 (△2.4)	0.1 (△54.5)	0.7 (△76.8)	4.9 (△11.4)	3.7 (40.0)	24.1 (△9.2)
일본	1.1 (△0.4)	0.1 (29.2)	0.1 (△12.3)	0.4 (4.1)	0.3 (4.7)	3.4 (△5.4)
EU	2.2 (△1.8)	0.4 (22.1)	1.5 (168.8)	1.8 (22.9)	2.1 (2.2)	11.0 (12.9)
베트남	13.3 (12.4)	11.2 (9.3)	1.2 (△47.6)	0.4 (259.3)	0.5 (65.0)	31.0 (5.7)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6.8% 늘어난 13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반도체(67.1억 달러, 25.0%↑), 컴퓨터·주변기기(15.0억 달러, 12.9%↑), 디스플레이(4.6억 달러, 41.8%↑) 등은 증가한 반면 휴대폰(5.5억 달러, △23.7%)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6.8억 달러), 미국(16.8억 달러), 베트남(21.1억 달러), EU(4.4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초를 지속하며 총 61.2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7월P	1~7월P	7월	1~7월
수출	전체 산업	607.0 (9.4)	4,111.6 (14.7)	554.6 (29.6)	3,586.0 (26.6)
	ICT	193.4 (△0.7)	1,417.8 (15.7)	194.8 (30.1)	1,225.1 (22.8)
수입	전체 산업	653.7 (21.8)	4,261.8 (25.5)	536.8 (38.2)	3,395.1 (26.3)
	ICT	132.2 (16.8)	875.9 (18.1)	113.2 (14.9)	741.4 (18.4)
무역수지	전체 산업	△46.7	△150.3	17.9	190.9
	ICT	61.2	541.8	81.5	483.7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2년 반도체 시장, 지속 성장하나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로 성장폭은 제한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6,392억 달러로 지속적 확대가 전망되나 소비심리 위축 등 수요가 제한되면서 성장세는 둔화 예상(Gartner, '22.6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제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3년 연속 성장 전망.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지정학적 문제의 여파와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PC·스마트폰향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22.3월(6,760억 달러, 13.6%↑) 대비 하향 조정
 - ※ 한편 다른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드는 '22.6월 반도체 집적회로(IC) 판매량이 집계를 시작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22.8월)했다고 발표하는 등 반도체 시장 부진 우려가 확대. 특히 6월은 성수기로 과거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여 왔기에 이 같은 판매량 감소는 이례적
 - (메모리 반도체 : 1,899억 달러, 14.5%↑) 데이터 센터 등 서버용 수요를 중심으로 선전하면서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 달성이 기대. 다만 PC·스마트폰 등 소비자 가전 수요가 둔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체 및 하락하며 '23년 이후 시장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
 - ※ '22.3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수요 대비 공급, Gartner, '22.6월) : (D램) 103.8%, (낸드플래시) 100.4%
 - (비메모리 반도체 : 4,493억 달러, 4.7%↑) 지난해 지속됐던 반도체 공급 부족 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 및 5G·AI·IoT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PC·스마트폰 등 ICT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3년 반도체 시장은 '1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반락할 것으로 예상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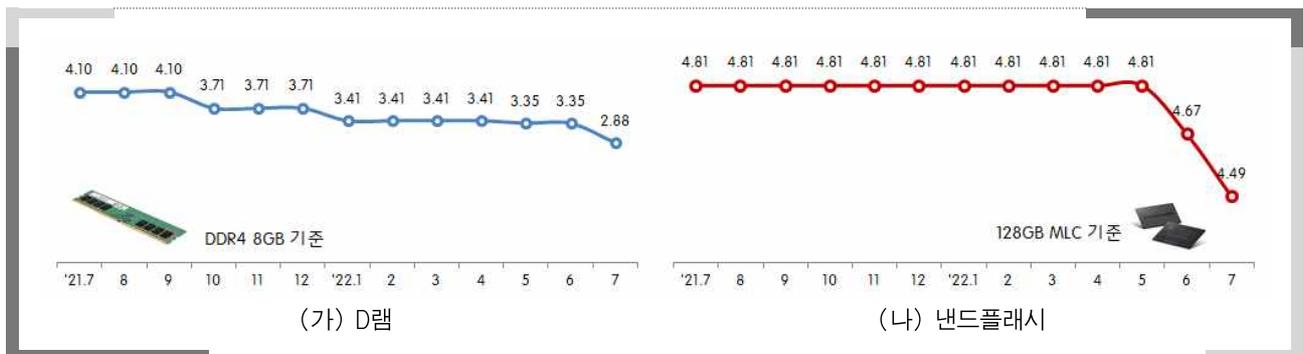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6.

□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낙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2.7월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세트업체의 재고 수준 증가 및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매 촉진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가격 타협 의지가 확대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하락(Dramexchange, '22.7월)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의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4.0% 하락한 2.88달러를 기록. 이는 '19.2월(△14.5%)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
 - 특히 소비자용 제품의 경우 수요 감소 확대가 예상되면서 '22.7월 발표된 가격 전망치 8~13% 하락에서 13~18% 하락으로 하향 조정(TrendForce, '22.8월)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용 범용제품(MLC 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은 4.49달러로 전월 대비 3.75% 하락. 지난 6월 4.67달러(△3.01%)로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
 - ※ 고정거래가격은 기업 간 계약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분기 첫 달에 변동하나 공급 과잉 우려 속에 2개월 연속 하락세
 - 한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업체는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 ※ 마이크론은 '22.2분기 매출이 기존 전망치인 68억~7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으며 엔비디아도 동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2.7.

□ 미국은 자국 반도체 육성법, 공급망 동맹,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 반도체 성장 견제

- (반도체 육성법 시행) '22.8.9일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및 기술 우위 등을 위해 연구·개발 등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골자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공포
 - 동 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 연구·노동력 개발(110억 달러), 국방 반도체 제조(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



- 또한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해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다만 ‘반도체 육성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한다는 골자의 ‘가드레일’ 조항 등 중국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
 - 해당 법안의 정식 발효로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
- **(반도체 동맹 제안)** 미국은 '22.3월 자국을 포함한 한국·일본·대만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Fab)4’를 제안했으며 예비회의 등을 통해 예비 참여국간 의견을 조율
-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은 아시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일각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 ※ 미국은 반도체 설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대만·한국은 각각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력 등 각 국가별로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동맹을 통한 반도체 생산·공급 시너지가 기대
 - 일본·대만 등은 ‘칩4’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對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동맹 가입 시 중국의 보복 대응 등을 우려해 결정을 고심. 다만 한국 정부는 '22.8월 말 또는 9월 초 개최가 예상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 참여 수준 등을 조율할 전망
- **(수출 규제 품목 추가)** 미국 상무부는 '22.8.15일 첨단 반도체와 터빈 생산에 필요한 품목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
- 이번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되는 품목은 반도체 소재용 다이아몬드, 산화갈륨, 전자설계자동화 (EDA) SW, 가스터빈엔진 가압연소기술 등 4가지 품목
 - ※ EDA SW는 반도체 칩 자체의 구조와 기능부터 생산 방식, 검증까지 전체 과정을 설계할 때 쓰는 SW로 이번 제재에 포함된 EDA SW는 3nm 이하 미세공정 칩 제조에 필수적인 ‘Gate All Around(GAA)’ 구조로 한정
 - 한편 미국은 이번 규제 발표 당시 특정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GAA 구조용 EDA SW 등 제재 품목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
 - ※ 현재 중국의 반도체 설계 시 GAA EDA SW가 필요하지 않으나 3nm 이하 첨단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GAA EDA SW가 필요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반도체 EDA 시장 중 62%를 시놉시스·케이던스 등 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이번 규제로 중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 '21년 반도체 EDA 업체별 시장 점유율(넛코리아 재인용, '22.8월, 원소스 TrendForce) : (시놉시스) 32%, (케이던스) 30%, (지멘스) 13%, (기타) 25%
 - ※ 참고로 '19년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당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으로부터 EDA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신규 칩 개발에 실패했으며 이에 화웨이라도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등 사업에 타격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반도체 감소에도 시스템 반도체 성장으로 '22.7월 수출은 성장세를 지속

- **(품목별)** 메모리 반도체는 감소했으나 시스템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2.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113.8억 달러로 25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메모리 반도체 : 61.7억 달러, $\Delta 13.5\%$) 낸드플래시 등은 증가했으나 전방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메모리 MCP, D램,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이 하락하면서 23개월 만에 반락
 - (시스템 반도체 : 46.8억 달러, $40.4\% \uparrow$) 파운드리·패키징 등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27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 역대 시스템 반도체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7월) 46.8, (2위 '22.3월) 44.5, (3위 '21.11월) 39.0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감소했으나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은 증가
 - 중국(홍콩 포함, 63.9억 달러, $\Delta 3.2\%$)은 시스템 반도체($39.1\% \uparrow$) 및 낸드플래시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단가 하락 및 현지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MCP·MCOs·D램 수출 부진으로 전체 메모리 반도체($\Delta 14.6\%$)가 감소하면서 '20.8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세로 반락
 - 베트남(13.3억 달러, $12.4\% \uparrow$)은 시스템 반도체($30.8\% \uparrow$)와 더불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3.6\% \uparrow$)가 동반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

표 1-3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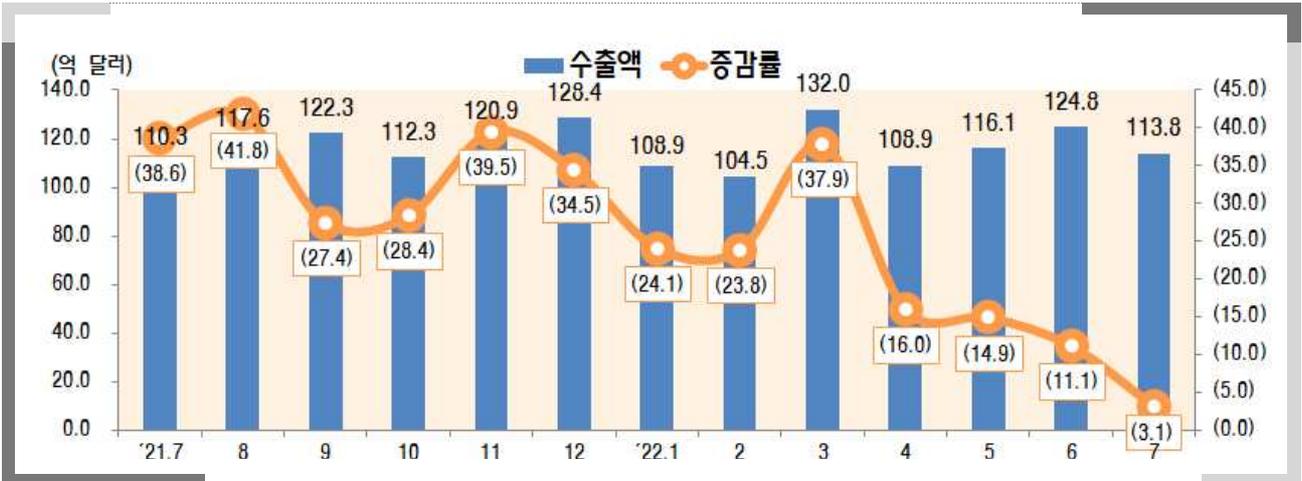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7
반도체	110.3 (38.6)	117.6 (41.8)	122.3 (27.4)	112.3 (28.4)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5 (23.8)	132.0 (37.9)	108.9 (16.0)	116.1 (14.9)	124.8 (11.1)	113.8 (3.1)
메모리	71.4 (43.8)	76.4 (50.6)	79.5 (28.6)	69.5 (28.1)	76.4 (47.3)	84.1 (40.3)	64.8 (21.9)	63.3 (21.3)	82.0 (34.0)	63.8 (7.7)	72.8 (10.8)	77.9 (3.2)	61.7 ($\Delta 13.5$)
D램	35.2 (39.8)	37.6 (55.1)	37.8 (28.7)	35.6 (41.1)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32.4 (12.9)	37.1 (27.9)	38.8 (14.9)	32.7 ($\Delta 7.0$)
낸드	4.9 (0.5)	5.7 (12.5)	6.6 (13.0)	6.3 (25.5)	6.2 (24.0)	6.4 ($\Delta 5.8$)	5.2 (6.8)	6.3 (36.9)	7.5 (68.8)	7.4 (51.0)	8.0 (36.8)	7.9 (32.0)	7.4 (49.3)
메모리 MCP	27.1 (72.2)	28.2 (58.9)	30.3 (34.3)	23.5 (19.8)	30.2 (57.6)	31.3 (31.3)	24.1 (16.4)	21.1 ($\Delta 1.5$)	30.5 (19.9)	19.8 ($\Delta 9.9$)	24.1 ($\Delta 11.9$)	25.1 ($\Delta 21.9$)	18.3 ($\Delta 32.6$)
메모리 MCOs	4.0 (8.4)	4.7 (32.9)	4.7 (19.4)	3.9 ($\Delta 7.3$)	2.8 ($\Delta 26.9$)	4.9 (21.9)	3.4 ($\Delta 6.4$)	4.0 (20.3)	5.1 (19.1)	4.1 (15.3)	3.5 (3.4)	6.1 (72.5)	3.2 ($\Delta 20.5$)
시스템 반도체	33.4 (35.8)	35.6 (31.2)	37.5 (31.7)	37.3 (32.3)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40.0 (36.4)	38.3 (26.8)	41.8 (33.3)	46.8 (40.4)
개별 소자	1.6 (13.7)	1.5 (19.5)	1.5 (2.4)	1.5 (4.1)	1.5 ($\Delta 4.0$)	1.5 ($\Delta 1.3$)	1.4 ($\Delta 4.0$)	1.4 (0.2)	1.6 (2.9)	1.5 ($\Delta 3.6$)	1.5 (3.7)	1.4 ($\Delta 5.4$)	1.3 ($\Delta 21.6$)
광전 소자	2.5 ($\Delta 11.9$)	2.6 ($\Delta 2.4$)	2.4 ($\Delta 19.5$)	2.5 (3.9)	2.5 (5.4)	2.5 ($\Delta 14.7$)	2.4 ($\Delta 13.4$)	2.0 ($\Delta 23.1$)	2.0 ($\Delta 24.6$)	2.0 ($\Delta 21.1$)	1.8 ($\Delta 27.5$)	2.1 ($\Delta 22.6$)	2.3 ($\Delta 5.7$)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52.2	15.0	45.9	331.2	25.2	40.9
2	홍콩	265.9	28.2	20.7	베트남	13.3	12.4	11.7	95.8	33.3	11.8
3	베트남	140.3	21.9	10.9	홍콩	11.7	-43.1	10.3	121.3	-17.5	15.0
4	대만	107.0	67.9	8.3	대만	9.8	9.6	8.6	75.4	33.1	9.3
5	미국	95.2	18.0	7.4	미국	8.2	-2.4	7.2	58.4	15.2	7.2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6.2	105.1	5.5	34.5	68.9	4.3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3.6	-3.5	3.2	25.3	31.0	3.1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말레이시아	1.6	0.9	1.4	10.7	20.8	1.3
9	일본	13.9	28.9	1.1	인도	1.1	7.8	1.0	12.8	82.2	1.6
10	인도	12.6	18.0	1.0	일본	1.1	-0.4	1.0	8.4	10.7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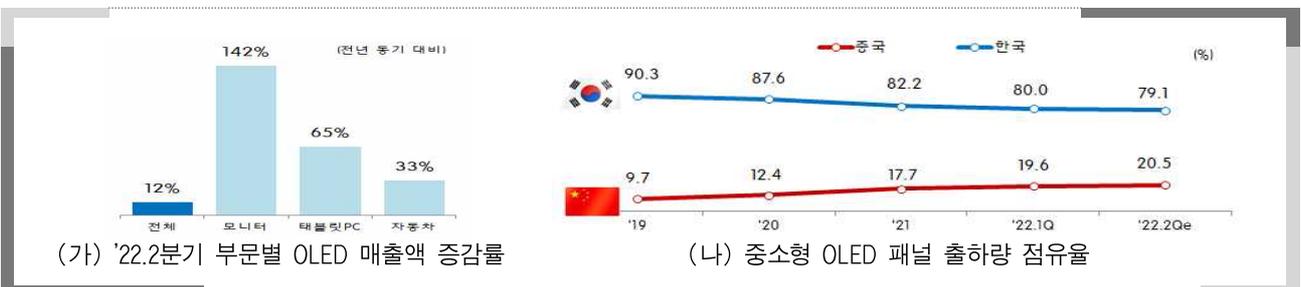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올해 LCD 패널 시장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OLED 패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시장 전망)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은 중소형 新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성이 부각
 - (LCD 패널) 국내 업체의 OLED로의 사업 재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전방 TV 수요 감소, LCD 패널 가격 하락 가속 등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면서 '22년 LCD 수요 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추산(조선일보, '22.8월, 원소스 DSCC)
 - ※ '22년 글로벌 TV 시장(2억 879만 대, △2.2%)은 '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경향신문, '22.6월)
 - 하반기에도 고금리·고물가 등과 더불어 러·우 전쟁,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 및 계획 정진 실행 등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더해지면서 업황 둔화가 확대될 전망. 다만 일각에서는 '22년 말 개최 예정인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카타르 월드컵')로 전방 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OLED 패널) 노트북·모니터·태블릿PC 등의 IT기기와 더불어 전장용·XR기기 등으로도 중형 OLED 채용이 증가하면서 '22.2분기 OLED 패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관측
 - ※ 특히 2분기 모니터용 OLED 패널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142% 급증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글로벌 모니터 업체들의 신제품 대거 출시 예고에 따라 모니터용 OLED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
 - 한편 중국 업체들의 중소형 OLED 침투가 확대되면서 2분기 中 점유율은 20%대를 첫 상회할 전망
- (2분기 실적)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국내 업체들의 실적은 희비가 교차
 - (삼성디스플레이) QD 패널 초기 비용, LCD 패널 가격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LCD 생산 축소·중단, 중소형 패널의 주요 플래그십 모델 수요 지속 등으로 선방하며 매출액(7.71조 원, 12%↑) 증가 실현. 영업이익도 1.06조 원을 기록
 - (LG디스플레이) 경쟁사 대비 높은 LCD 매출 비중,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 전방 수요 위축 등에 타격을 받아 2분기 매출액(5.6조 원, △19.5%) 하락과 영업손실 4,883억 원을 기록

그림 1-4 ' 22.2분기 부문별 OLED 매출액 증감률 및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 점유율



자료 : 조선일보, 2022.8.16.(원소스 DSCC) / 조선비즈, 2022.8.4.(원소스 OMDIA)



□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익성 높은 OLED 시장에 주목

- 올해 LG디스플레이의 중형 OLED 패널 시장 합류로 업체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
 - (LG디스플레이) 글로벌 TV 수요 감소, 中 주요도시 봉쇄 여파 등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동사는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LCD 패널 사업을 단계적으로 과감히 접을 것이라 발표
 - 경기 파주 P7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2.하반기 6만 대, '23.상반기 3만 대 수준으로 감산하며 점진적인 탈출에 나설 방침. 내년 내로 국내 LCD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OLED 시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
 - ※ 다만 중국 광저우 LCD 생산 공장은 이미 전체 생산량 20만 대 중 10%를 IT기기용으로 전환하여 비교적 수익성이 보장돼 국내와 달리 당분간 LCD 생산을 유지할 방침
 - 한편 '22년 IT기기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OLED 모니터 출시 예고와 '23년 출시될 '아이패드' 신제품 OLED 패널 채용 등으로 중형 OLED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이에 발맞춰 LG디스플레이는 中 광저우, 韓 파주 생산라인을 통해 게이밍 모니터向 등 20인치대 OLED 패널을 연내 공급할 것이라 밝히며 중형 OLED 시장으로의 진입을 예고해 주목. 중소형 OLED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 2022(8.24~28일)'에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참가해 게이밍에 특화된 각종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선보여 눈길
 - 응답 속도가 뛰어난 240Hz 고주사율 노트북용 OLED, 모니터용 QD-OLED와 더불어 접을 수 있는 게이밍 패널 '플렉스 게이밍' 등을 전시하며 게이밍 수요를 중심으로 중형 OLED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
- 국내에서 개최된 'K-디스플레이 2022(8.10~12일)'에서 OLED 신기술이 대거 공개
 - (삼성디스플레이) 자사가 개발한 QD-OLED를 전시해 경쟁 제품 대비 QD의 완벽한 색 재현력 등 기술 우위를 강조한 데 이어 안팎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S자형 폴더블, 안으로 두 번 접는 G자형 폴더블, 상하좌우로 패널을 늘리는 슬라이더블 등 차세대 콘셉트 제품도 소개
 - 또한 '갤럭시Z 폴드4'에 적용된 '에코 스퀘어 OLED 플러스'와 'UPC 플러스' 기술도 처음 공개해 눈길
 - ※ 에코 스퀘어 OLED 플러스는 전작 대비 소비전력이 37% 감소, 빛 투과율은 1.6배 향상된 무편광 저전력 기술을 의미하고 UPC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구멍을 없애 풀 스크린을 구현한 기술로 정의
 - (LG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크기의 OLED TV 패널인 '97인치 OLED.EX'는 별도의 스피커 없이 화면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필름 CSO' 기술이 적용돼 눈길. 이외에도 투명 OLED 디스플레이, 게이밍에 최적화된 '48·42인치 OLED.EX'도 소개
 - (BOE) 폴더블, 슬라이더블 등 다양한 폼팩터를 강점으로 하는 자사의 '에프(f)-OLED' 기술력을 소개하며 올해 새로운 트렌드로 이끌어 갈 것이라 발표

2) 수출 동향

□ '22.7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20.0억 달러 형성

- (품목별) OLED 수출은 반등한 반면 LCD·부분품 등의 감소로 한 자릿수대 하락세 지속
 - (LCD 패널 : 4.8억 달러, △8.6%) 전방 TV 수요 감소, LCD 패널 가격의 내림세, 국내 LCD 생산 축소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개월 연속 5억 달러대를 하회
 - (OLED 패널 : 12.5억 달러, 2.7%↑) 다양한 폼팩터의 스마트폰 확산, 모니터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장용·XR기기·IT기기 등으로 OLED 패널 채용이 확대되면서 2개월 만에 반등
 - (부분품 : 2.7억 달러, △24.2%) LCD 패널 수출 하락과 함께 편광판(1.8억 달러, △27.0%), BLU(△66.2%) 등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3억 달러대를 하회
- (지역별) 베트남·멕시코·헝가리 등은 성장했으나 중국·미국 등의 부진으로 하락 기록
 - 베트남(11.2억 달러, 9.3%↑)은 스마트폰向 OLED 패널(10.4억 달러, 16.7%↑) 수출 호조 등으로 7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10억 달러대를 재돌파
 - 중국(홍콩 포함, 6.6억 달러, △29.1%)은 상하이 봉쇄, 계획 정전 등으로 LCD(3.2억 달러, △19.6%), OLED(1.4억 달러, △56.6%), 부분품(1.4억 달러, △7.2%) 등의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지속
 - 멕시코(0.8억 달러, 236.3%↑)는 부분품(0.1억 달러, △51.8%)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LCD(0.5억 달러, 1,024.1%↑), OLED(0.3억 달러, 3,729.0%↑)의 엄청난 성장세로 '18.9월 이후 최대 수출을 기록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7
패널	20.9 (34.8)	22.1 (22.4)	24.4 (15.7)	22.4 (5.8)	24.3 (11.3)	24.7 (3.1)	23.5 (13.3)	22.5 (39.3)	24.5 (45.3)	20.5 (22.5)	18.2 (2.4)	17.8 (△8.4)	20.0 (△4.7)
LCD	5.2 (△5.4)	4.8 (△7.1)	4.9 (△11.3)	5.1 (△3.7)	5.5 (2.3)	5.6 (△8.3)	5.4 (1.8)	5.2 (15.8)	6.1 (24.2)	5.2 (5.2)	4.9 (3.0)	4.3 (△9.0)	4.8 (△8.6)
OLED	12.2 (89.6)	14.0 (47.3)	16.2 (33.1)	13.9 (8.7)	15.3 (14.0)	15.3 (6.2)	14.0 (14.4)	13.1 (56.3)	14.2 (69.0)	11.7 (38.8)	9.9 (2.1)	10.9 (△2.4)	12.5 (2.7)
부분품	3.6 (△1.4)	3.3 (△2.2)	3.3 (△2.9)	3.3 (10.0)	3.5 (15.7)	3.7 (10.6)	4.1 (28.0)	4.2 (27.9)	4.2 (18.1)	3.6 (6.7)	3.4 (2.4)	2.6 (△26.4)	2.7 (△24.2)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11.2	9.3	56.0	73.3	24.6	49.9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6.5	-28.5	32.4	58.0	-2.1	39.4
3	홍콩	5.1	31.9	2.1	멕시코	0.8	236.3	4.2	3.8	180.9	2.6
4	멕시코	2.6	26.7	1.0	헝가리	0.3	79.6	1.5	1.5	181.5	1.0
5	미국	2.2	0.6	0.9	인도	0.3	235.8	1.4	1.7	136.9	1.2
6	인도	1.1	50.4	0.5	홍콩	0.2	-47.2	0.8	2.9	23.7	2.0
7	일본	1.0	-22.7	0.4	일본	0.1	29.2	0.6	0.9	88.2	0.6
8	헝가리	0.8	42.1	0.3	미국	0.1	-54.5	0.5	1.1	-24.7	0.7
9	대만	0.6	-7.8	0.3	브라질	0.1	238.0	0.5	0.3	40.6	0.2
10	폴란드	0.6	-15.6	0.2	이집트	0.1	12.1	0.3	0.4	65.5	0.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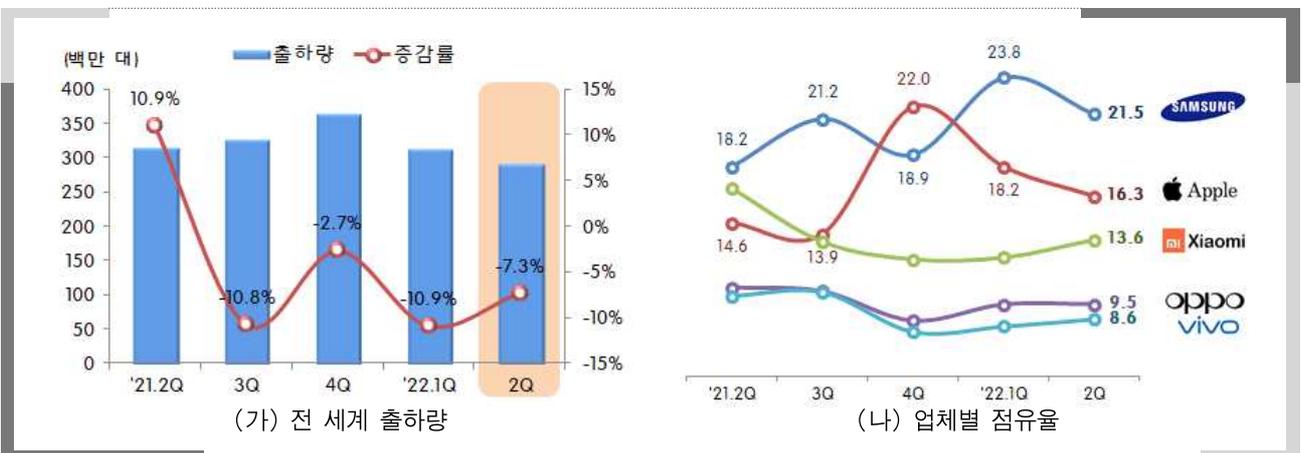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2.2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상위 업체 간 격차는 확대

- **(전체)** '22.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정학적 문제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든 2억 9,120만 대로 4분기 연속 하락(SA, '22.7월)
 -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면서 '20.2분기 이후 다시 3억 달러대를 하회
 - ※ '22.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 카날리시(3억 1,600만 대)와 카운터포인트리서치(2억 9,450만 대)도 출하량 수치는 각각 다르지만 성장률은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분석('22.7월)
 - 하반기에도 지정학적 문제, 경기 침체, 가격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성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간 출하량은 전년 대비 4.2% 줄어든 13억 140만 대로 예상(SA, '22.6월)
 - ※ SA는 경기 침체 등이 심화될 경우 '22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 감소폭이 7~8%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22.7월)
- **(업체별)** 삼성전자가 1위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 업체는 수요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상위 업체 간 격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SA, '22.7월)
 - (삼성전자)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6,250만 대를 출하하며 상위 업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달성했으며 21.5%(전년 동기 대비 3.3%p↑)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
 -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상반기 전략폰 '갤럭시S22' 시리즈 중 특히 고가의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이 선전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

그림 1-6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SA 재인용, 2022.7.



- (애플) ‘아이폰13’ 시리즈가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선전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4,750만 대를 출하하며 16.3%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2분기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
- (샤오미) 유럽 등 지역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3,95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13.6%(△3.2%p)의 시장 점유율로 부진
- (기타) 오포(2,770만 대)·비보(2,490만 대) 등도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봉쇄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주요 시장 위축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점유율도 각각 9.5%(△1.1%p), 8.6%(△1.5%p)로 축소

□ 삼성전자는 '22.8월 4세대 폴더블폰을 출시하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입지를 강화

-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하며 하반기 시장 공략과 더불어 폴더블폰 대중화를 도모
 - 삼성전자가 '22.8.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4’와 ‘갤럭시Z 플립4’ 등을 공개. 동 사는 '22.8.16~8.22일까지 1주일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8.26일 한국·미국·유럽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
 - 이번 4세대 폴더블폰은 힌지(경첩) 구조 개선을 통해 힌지 주름 완화, 제품 부피 축소, 배터리 용량 확대 등을 개선했으며 안정적인 화면비(갤럭시Z 폴드4, 외부 24.5:9→23:9, 내부 5:4→6:5)와 UDC(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완성도 개선 등 전작의 단점을 보완
 - ‘갤럭시Z 폴드4’ 출고가는 최저 199만 8,700원으로 전작과 동일하며, ‘갤럭시Z 플립4’는 135만 3,000원으로 전작(갤럭시Z 플립3 출고가 125만 4,000원) 대비 약 10만 원 인상
 - ※ 당초 출고가는 전작 대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 등으로 동일 또는 소폭 인상
 - 한편 삼성전자는 신제품 판매량을 전작 출하량(790만 대)의 약 두 배 수준인 1,500만 대(‘갤럭시Z 폴드4’ 500만 대·‘갤럭시Z 플립4’ 1,000만 대)로 목표
 - ※ 사전 예약이 시작된 '22.8.16일의 신작 판매량은 전작 대비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갤럭시Z 폴드4’가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갤럭시Z 플립4’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폴더블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
 -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화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2년 1,600만 대로 전년(900만 대) 대비 73% 늘어날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2.8월)
 - ※ 연간 폴더블폰 출하량 추이(카운터포인트리서치, 백만 대, '22.8월) : ('21) 9→('22F) 16→('23F) 26
 - 이번 ‘갤럭시Z 플립4/폴드4’ 판매량이 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2.하반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할 것으로 기대
 - ※ 화웨이·오포·샤오미·비보 등 중국 업체는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있으나 판매가 중국 시장으로 제한될 전망

표 1-7 | 삼성전자 하반기 신제품 사양

구분	갤럭시Z 플립4	갤럭시Z 폴드4
제품 사진		
출시일	사전예약 : 8.16~8.22일 / 공식 출시일 8.26일	
디스플레이	메인 : 6.7인치 FHD +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2640 x 1080) 커버 : 1.9인치 슈퍼 AMOLED(512 x 260)	메인 : 7.6인치 QXGA +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2176 x 1812) 커버 : 6.2인치 HD + 다이내믹 AMOLED 2X (2316 x 904)
프로세서	퀄컴 스냅드래곤 8+1세대(4nm, 옥타코어)	
크기/무게	접었을 때 : 84.9 x 71.9 x 17.1~15.9mm 펼쳤을 때 : 165.2 x 71.9 x 6.9mm 무게 : 187g	접었을 때 : 155.1 x 67.1 x 15.8~14.2mm 펼쳤을 때 : 155.1 x 130.1 x 6.3mm 무게 : 263g
카메라	후면(듀얼) : 1200만 화소 초광각 +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전면 : 1000만 화소	커버 : 1000만 화소 후면(트리플) : 1200만 화소 초광각 + 5000만 화소 듀얼 픽셀 + 1000만 화소 망원 전면(UDC) : 400만 화소
메모리	8GB(RAM) + 256GB/512GB	12GB(RAM) + 256GB/512GB/1TB(삼성닷컴 전용)
배터리	3700mAh	4400mAh
출고가	135만 3,000원 / 147만 4,000원	199만 8,700원 / 211만 9,700원 / 236만 1,700원
기타	방수 IPX8	방수 IPX8, S펜 지원

자료 : 삼성전자

2) 수출 동향

□ '22.7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 및 부분품이 동반 감소하며 하락세로 반전

- (품목별) '22.7월 휴대폰 수출은 시장 위축 우려와 더불어 하반기 신제품 대기수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2% 감소한 6.8억 달러를 기록하며 '22.2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
 - (휴대폰 완제품 : 3.0억 달러, △22.2%)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및 하반기 신제품 출시('22.8.26일 '갤럭시Z 플립4', '갤럭시Z 폴드4'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 등으로 수출은 하락세로 반전
 - (휴대폰 부분품 : 3.8억 달러, △34.0%) 3D 센싱 모듈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스마트폰 수요 우려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카메라 모듈, PCB 등이 감소하며 하락세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1.9억 달러, △31.8%), 베트남(1.2억 달러, △47.9%), 인도(0.1억 달러, 165.5%↑)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미국·베트남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EU 등은 성장세를 유지
 - 중국(홍콩 포함, 1.9억 달러, $\Delta 34.9\%$)은 현지 스마트폰 시장 둔화 등으로 완제품($\Delta 72.9\%$)과 카메라 모듈 등 부품품($\Delta 31.8\%$)이 감소하면서 '20.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 EU(1.5억 달러, $168.8\% \uparrow$)는 국내 기업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완제품($336.0\% \uparrow$) 수출이 급등, 4개월 연속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
 - 베트남(1.2억 달러, $\Delta 47.6\%$)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생산 라인 일부 국내 이전 등에 따른 현지 생산 라인 가동 축소 등으로 카메라 모듈, PCB, RFIC, 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관련 부품품($\Delta 47.9\%$) 및 완제품($\Delta 12.4\%$)이 동반 하락하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고려해 '22.2월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 미국(0.7억 달러, $\Delta 76.8\%$)은 부품품($56.8\% \uparrow$) 증가에도 현지 수요 위축과 더불어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완제품($\Delta 87.0\%$)이 부진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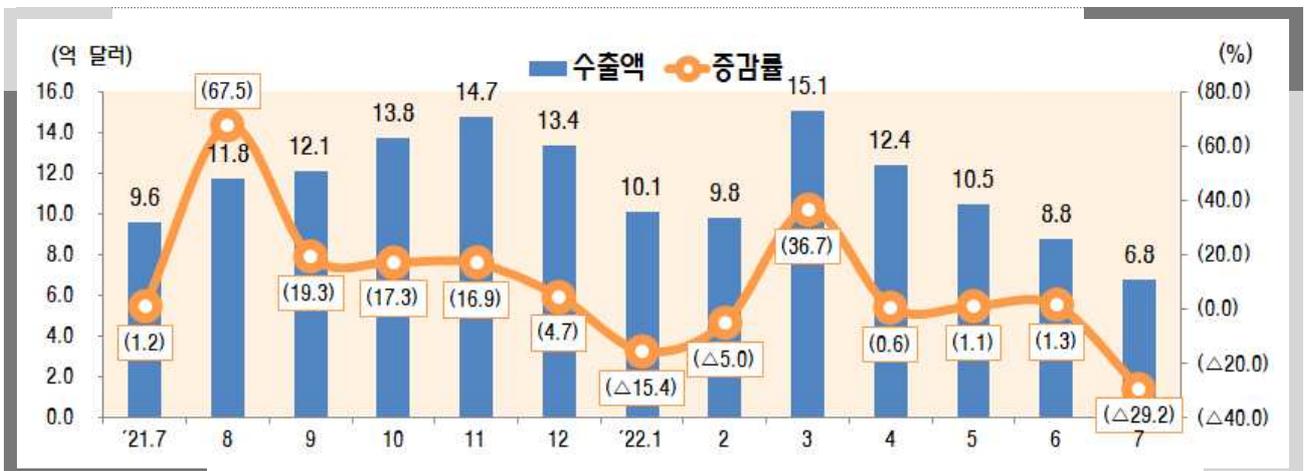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7
휴대 단말기	9.6 (1.2)	11.8 (67.5)	12.1 (19.3)	13.8 (17.3)	14.7 (16.9)	13.4 (4.7)	10.1 ($\Delta 15.4$)	9.8 ($\Delta 5.0$)	15.1 (36.7)	12.4 (0.6)	10.5 (1.1)	8.8 (1.3)	6.8 ($\Delta 29.2$)
완제품	3.9 (28.2)	3.9 (26.6)	3.3 (49.1)	4.0 (48.5)	4.3 (70.8)	3.7 (43.5)	1.3 (54.3)	2.7 (47.9)	7.7 (36.9)	5.7 (57.7)	4.2 (32.8)	4.6 (13.5)	3.0 ($\Delta 21.9$)
부품품	5.7 (4.5)	7.9 (5.1)	8.8 ($\Delta 0.3$)	9.7 (16.6)	10.4 (10.6)	9.7 (12.8)	8.8 ($\Delta 40.0$)	7.1 ($\Delta 48.9$)	7.4 ($\Delta 61.4$)	6.8 ($\Delta 44.8$)	6.3 ($\Delta 53.1$)	4.2 ($\Delta 51.4$)	3.8 ($\Delta 58.1$)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5	70.2	35.4	중국	1.9	-29.6	27.4	32.3	53.6	44.0
2	베트남	29.4	-7.9	21.0	베트남	1.2	-47.6	17.2	6.1	-62.4	8.3
3	미국	24.5	-2.0	17.5	미국	0.7	-76.8	10.1	7.5	-56.7	10.3
4	영국	5.3	36.6	3.8	캐나다	0.5	61.8	7.0	1.5	70.9	2.1
5	독일	4.8	76.4	3.4	영국	0.4	169.7	6.0	3.9	29.8	5.3
6	홍콩	3.8	0.1	2.7	독일	0.3	73.6	5.1	4.4	69.4	6.0
7	인도	3.3	192.3	2.4	오스트리아	0.3	1486.3	5.1	3.6	274.3	4.9
8	일본	2.2	9.0	1.6	네덜란드	0.3	377.8	3.8	2.1	160.4	2.8
9	프랑스	2.0	149.6	1.4	이탈리아	0.2	710.3	2.8	1.2	206.6	1.7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프랑스	0.2	124.6	2.3	1.4	56.8	1.9

자료 : IITP, KTSPI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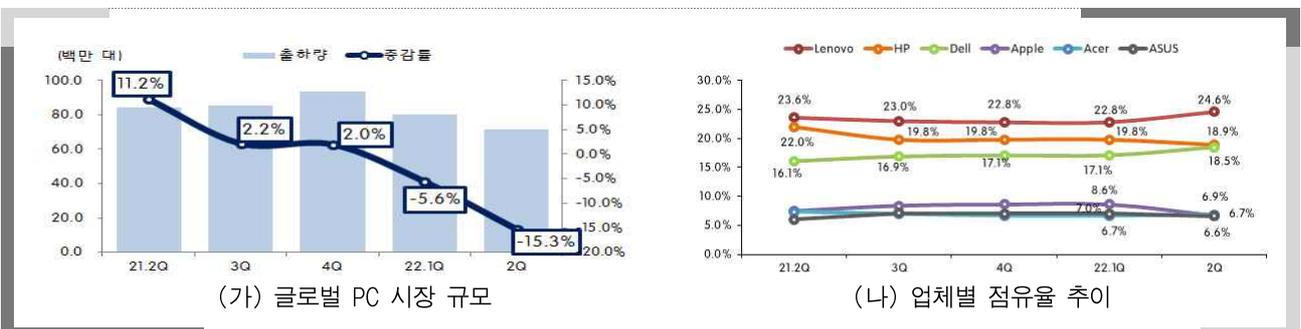
1) 수출 환경

□ (PC) 올 2분기 글로벌 시장은 공급망 문제, 수요 둔화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 기록

- (시장 규모) '22.2분기 PC 시장(7,130만 대, △15.3%)은 하락세가 지속(IDC, '22.7월)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확대, 中 상하이·쿤산 지역의 봉쇄 조치, 소비자용·교육용 PC 수요 정체 등으로 글로벌 PC 시장은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
 -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8.2분기(6,212만 대), '19.2분기(6,500만 대) 시장 규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눈길
 - (경쟁 현황) 2분기 주요 PC 업체들은 수요 부진 및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Dell(1,320만 대, △5.3%)은 유일하게 한 자릿수 하락에 그친 것으로 관측
 - 이러한 역성장 속에서도 상위 업체 Lenovo(1,750만 대, △12.1%), HP(1,350만 대, △27.6%), Dell은 각각 점유율 1위(24.6%), 2위(18.9%), 3위(18.5%)를 차지하며 순위를 유지
 - 한편 Acer(500만 대, △19.2%)는 Apple(480만 대, △22.5%), ASUS(470만 대, △4.6%)를 제치고 6.9%의 점유율로 2단계 상승한 4위에 랭크돼 주목
- (업체 동향) 하반기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잇따라 출시
 - (Dell)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인 에일리언웨어의 'M시리즈', 'X시리즈' 2종의 신제품을 출시(7.22일). 'X17 R2'의 경우 FHD 해상도, 480Hz 주사율, 3m/s 응답속도 등을 지원
 - (Acer)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i7 프로세서, 지포스 RTX 308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초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헬리오스 300' 출시를 예고(7.20일)

※ 15.6인치 크기로 QHD 해상도를 지원하며 165Hz 주사율, 3m/s 응답속도 등도 구현 가능

그림 1-8 | 글로벌 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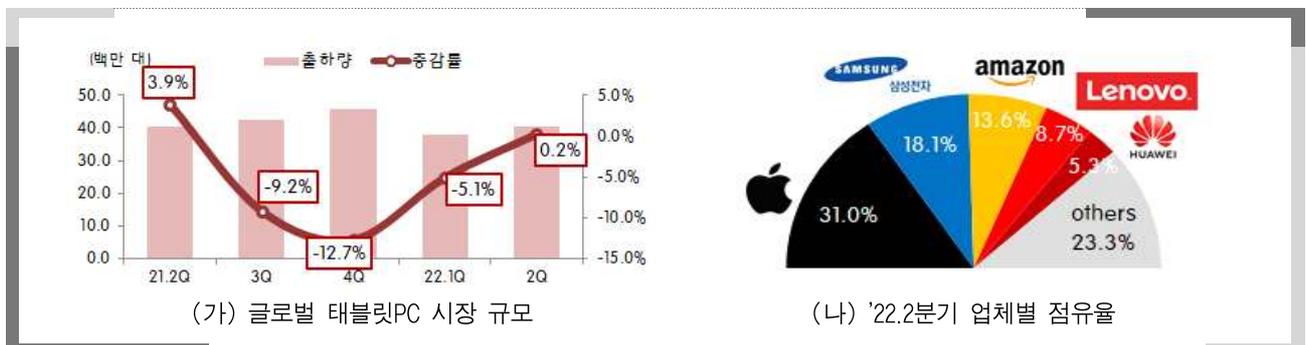


자료 : IDC, 2022.7.

□ (태블릿PC) 2분기 반짝 성장하며 회복, 한편 中의 정전 계획으로 Apple에 피해가 우려

- (시장 규모) '22.2분기 태블릿PC 시장(4,050만 대, 0.2%↑)은 4분기 만에 반등(IDC, '22.7월)
 -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19 특수 종료, 지정학적 문제, 노트북 및 대화면 스마트폰으로의 수요 이동 등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2분기는 예상외의 실적으로 선방해 눈길
 - 중국의 618 쇼핑축제, 아마존 프라임데이(7.12~13일) 등 대규모 판촉 할인 행사와 더불어 샤오미·오포·비보 등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교육용 수요 지속 증가 등이 소폭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
 - (경쟁 현황) Apple(1,260만 대, Δ2.9%)은 31.0%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18.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730만 대, Δ10.6%)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
 - 반면 아마존(550만 대, 26.9%↑)은 상위 업체들 중 유일하게 출하량 증가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3위 (13.6%)를 유지해 눈길. 이어 Lenovo(350만 대, Δ25.7%), 화웨이(210만 대, Δ0.2%)가 4, 5위를 차지
-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예고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시적인 정전 계획으로 아이패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
 - (Apple) 중국은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8.15일부터 쓰촨성 지역의 산업시설 가동을 6일간 전면 중단하는 계획 정전에 돌입. 이에 따라 아이패드 주요 생산 거점인 폭스콘의 청두 공장 또한 가동이 중단돼 Apple의 피해가 우려
 - ※ 한편 Apple은 '22.10월 M2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와 보급형 '10세대 아이패드' 등 신제품 공개 예정
 -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갤럭시탭 S9' 모델과 함께 폴더블 형태의 태블릿PC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목이 집중.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 시장에서도 폼팩터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Lenovo) 11.2인치 2.5K OLED 패널을 탑재하고 120Hz 주사율, 360Hz 터치 샘플링을 지원하는 태블릿PC 신제품 'Xiaoxin 프로 패드 2022'를 공개하며 하반기 라인업을 강화('22.8월)

그림 1-9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규모 및 '22.2분기 업체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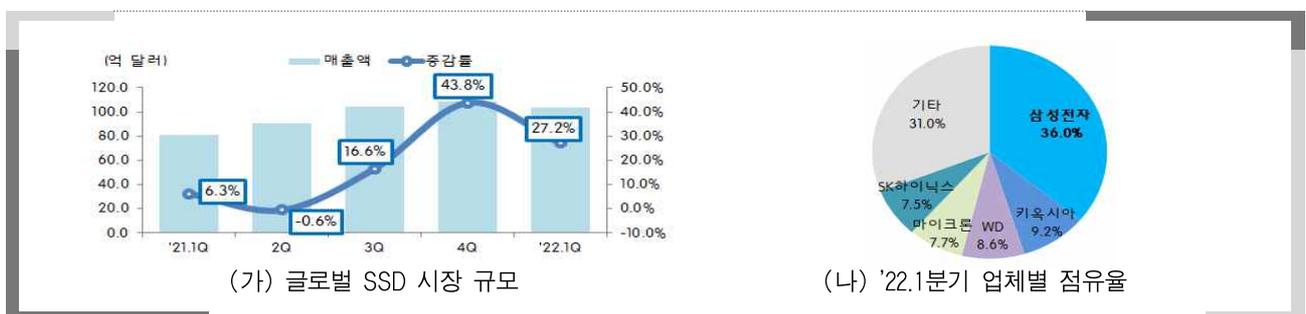


자료 : IDC, 2022.7.

□ (SSD) 올 1분기 SSD 시장, 기업용 수요 호조 지속으로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시장 규모) '22.1분기 글로벌 SSD 시장은 27.2% 증가한 103.1억 달러 기록(IDC, '22.5월)
 - 5G 보급 확대, AI·IoT 기술 발달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사내 업무 복귀 확산 등으로 글로벌 IT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向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용 SSD 출하량(1,611만 대, 46.0%↑)과 매출액(55.2억 달러, 59.0%↑)이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소비자용 SSD 시장은 노트북·PC 수요 등이 정체되면서 출하량(9,183만 대, △5.0%)은 반락, 매출액(46.9억 달러, 2.9%↑)은 성장 폭이 한 자릿수대로 둔화돼 눈길
 - (경쟁 현황) '22.1분기 삼성전자(37.1억 달러, 45.0%↑)는 기업용 수요 등에 힘입어 36.0%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 이어 키옥시아(9.5억 달러, 30.4%↑)가 인텔의 공백을 메우며 2위(9.2%)를 차지
 - 한편 키옥시아와 WD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원재료 오염 여파('22.2월) 등으로 WD(8.9억 달러, △11.9%)는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이며 한 단계 하락한 3위(8.6%)에 랭크
- (업체 동향) 낸드플래시 기술 제고와 더불어 고성능·고용량 신제품 개발에 몰두
 - (삼성전자) 전작 대비 내부 연산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한 '2세대 스마트 SSD('22.7월)' 개발에 성공. 향후 다양한 고객사와 제품 성능을 검증해가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마이크론) 데이터 센터용 176단 낸드플래시 기반의 '마이크론 5,400 SATA SSD'를 출시(8.8일). 해당 제품은 높은 안정성과 함께 기존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SATA 인터페이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어 탑재 비용이 저렴한 점이 특징
 - (SK하이닉스) 업계 최초로 238단 TLC 4D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해 주목. 소비자용 PC 등에 238단 SSD 신제품을 우선 출시한 뒤 스마트폰용·서버용 고용량 SSD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
 - (솔리다임) SK하이닉스에 인수된 이후 첫 SSD 제품으로 '솔리다임 P41 플러스'를 공개(8.3일). 최대 4,125 MB/s의 순차 읽기 속도와 512G~2TB의 용량을 지원하며 기업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

그림 1-10 | 글로벌 SSD 시장 규모 및 '22.1분기 업체별 점유율



자료 : IDC, 2022.5.

2) 수출 동향

□ '22.7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17개월 만에 반락

- **(품목별)** 컴퓨터 부품, SSD 등의 역성장으로 전체 수출은 21.9% 감소한 12.1억 달러 기록
 - (컴퓨터 : 0.9억 달러, $\Delta 58.1\%$) 노트북(0.1억 달러, $14.2\% \uparrow$)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쇄 정책 및 일시적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등으로 부품 수출이 7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 컴퓨터 수출 또한 7개월 연속 1억 달러대를 하회
 - (주변기기 : 11.2억 달러, $\Delta 16.3\%$)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전자제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SSD(8.7억 달러, $\Delta 22.1\%$) 수출이 반락하는 등 주변기기 수출은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지역별)** SSD 수요 위축 등으로 주요 교역국(중국·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하락 전환
 - 중국(홍콩 포함, 3.1억 달러, $\Delta 39.3\%$)은 상하이 봉쇄 조치 등으로 컴퓨터 부품(0.3억 달러, $\Delta 76.0\%$) 수출에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SD 수요(2.1억 달러, $\Delta 33.4\%$)까지 급감하면서 3개월 연속 내림세 기록
 - 미국(4.9억 달러, $\Delta 11.4\%$)은 컴퓨터(0.1억 달러, $\Delta 24.6\%$) 수출 감소, SSD(4.1억 달러, $\Delta 10.3\%$) 수요 반락 등이 더해지면서 15개월 만에 하락 진입

표 1-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7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 (28.2)	16.9 (26.6)	19.2 (49.1)	14.8 (48.5)	17.8 (70.8)	16.6 (43.5)	15.3 (54.3)	15.8 (47.9)	17.9 (36.9)	17.6 (57.7)	17.7 (32.8)	16.9 (13.5)	12.1 ($\Delta 21.9$)
컴퓨터	2.1 (4.5)	1.8 (5.1)	2.0 ($\Delta 0.3$)	2.1 (16.6)	2.2 (10.6)	2.4 (12.8)	1.0 ($\Delta 40.0$)	0.8 ($\Delta 48.9$)	0.7 ($\Delta 61.4$)	0.9 ($\Delta 44.8$)	0.9 ($\Delta 53.1$)	0.9 ($\Delta 51.4$)	0.9 ($\Delta 58.1$)
부품	1.8 (10.5)	1.5 (4.5)	1.6 ($\Delta 5.8$)	1.7 (16.3)	1.8 (8.0)	1.8 (9.3)	0.6 ($\Delta 59.4$)	0.4 ($\Delta 69.0$)	0.4 ($\Delta 74.8$)	0.5 ($\Delta 62.6$)	0.5 ($\Delta 68.4$)	0.5 ($\Delta 66.9$)	0.5 ($\Delta 71.3$)
주변기기	13.4 (32.9)	15.1 (29.8)	17.3 (58.0)	12.8 (55.3)	15.6 (85.0)	14.2 (50.4)	14.4 (72.7)	15.0 (63.9)	17.2 (52.8)	16.7 (75.3)	16.8 (47.5)	16.0 (23.0)	11.2 ($\Delta 16.3$)
보조기 장치	11.2 (33.3)	13.6 (33.0)	15.3 (61.6)	10.9 (59.8)	13.9 (102.5)	12.3 (54.3)	12.1 (71.1)	13.2 (69.2)	14.2 (54.9)	14.4 (91.2)	14.1 (45.7)	13.5 (21.0)	8.7 ($\Delta 22.2$)
프린터	0.4 (22.6)	0.3 ($\Delta 13.7$)	0.3 ($\Delta 12.4$)	0.3 ($\Delta 9.5$)	0.3 ($\Delta 3.7$)	0.4 (6.3)	0.4 (15.5)	0.3 (0.5)	0.4 (17.8)	0.4 ($\Delta 1.9$)	0.4 (3.4)	0.4 ($\Delta 8.1$)	0.4 (15.9)
모니터	0.7 (75.4)	0.6 (54.7)	0.7 (68.7)	0.7 (69.7)	0.8 (63.2)	0.9 (63.3)	1.3 (191.1)	1.0 (111.9)	1.2 (119.2)	1.1 (125.8)	1.1 (101.8)	1.0 (72.3)	1.1 (52.0)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6.8	25.3	32.7	미국	4.9	-11.4	40.5	41.0	46.6	36.1	
2	중국	44.8	8.9	25.8	중국	2.3	-33.6	19.4	23.7	-1.2	20.9	
3	홍콩	19.1	52.4	11.0	홍콩	0.7	-52.6	5.9	10.4	22.2	9.2	
4	일본	5.6	11.5	3.2	네덜란드	0.6	165.6	5.0	5.4	188.8	4.8	
5	대만	4.9	52.1	2.8	일본	0.4	4.1	3.6	4.9	45.6	4.4	
6	네덜란드	4.7	58.3	2.7	베트남	0.4	259.3	3.0	2.5	180.0	2.2	
7	멕시코	4.7	35.4	2.7	폴란드	0.3	117.2	2.5	2.0	83.5	1.8	
8	싱가포르	4.3	106.0	2.5	체코	0.3	69.9	2.4	1.8	41.8	1.6	
9	아일랜드	4.2	94.9	2.4	싱가포르	0.3	-59.8	2.3	3.0	50.3	2.6	
10	독일	2.8	7.3	1.6	멕시코	0.2	-58.0	1.8	2.8	3.0	2.5	

자료 : IITP, KTSPi

6 이차전지

1) 수출 환경

□ 여러 약재 속에서도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고성장 지속, 국내 업체 실적도 선방

- (시장 규모) '22.상반기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203.4GWh, 76.8%↑), 높은 성장 곡선 유지
 - 러·우 전쟁,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됐으나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확산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강화 등으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22.2분기(108.3GWh, 64.3%↑)까지 8분기 연속 상승. '22.상반기 전체로도 호조세 유지
 - ※ '22.상반기 전기차(BEV+PHEV)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428.5만 대로 잠정 집계(SNER, '22.7월)
- (경쟁 동향) 국내 3사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9.1%p 하락하였으나 출하 증가세는 지속
 - '22.상반기 CATL(70.9GWh, 115.6%↑)은 자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34.8%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 마찬가지로 BYD(24.0GWh, 206.2%↑)도 고성장세를 기록하며 3위(11.8%)에 랭크
 - LG에너지솔루션(29.2GWh, 6.9%↑)은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전년 상반기 점유율 대비 9.4%p 감소하였으나 유럽·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판매 호조 등으로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2위 (14.4%)를 지속
 - 이어 파나소닉(19.5GWh, 12.5%↑), SK on(13.2GWh, 114.4%↑), 삼성SDI(10.0GWh, 50.6%↑)가 각각 4, 5, 6위를 차지. 특히 SK on은 아이오닉5, EV6 판매 호조 등으로 국내 3사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눈길

그림 1-12 |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22.상반기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R리서치, 2022.7. / 2022.8.

□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공급망 확대를 위한 IRA 법안 도입 추진, 폐배터리 시장도 주목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8.16일)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양분
 - 미국은 자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을 확대('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달성 목표)하고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을 견제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 도입을 추진, 상원(8.7일)과 하원(8.12일) 통과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상황
 - 동 법안은 기존 제조업체당 연간 20만 대, 친환경차에 제공했던 보조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고 지급 기한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조금 관련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하였으며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
 - ※ 美의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를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
 - 다만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까다롭게 강화하여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이차전지를 탑재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 밝혀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
 - ※ 국내 업체들은 주 원재료인 코발트, 황산망간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각각 87%, 99%)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 내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이차전지 부품·광석 대부분을 도맡아 생산·제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IEA, '22.7월)

○ (참고) IRA 內 전기차·이차전지 관련 세부 규정

- (#1) '23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련·생산한 원자재(리튬·니켈 등)를 40% 함유한 이차전지가 탑재된 전기차일 경우 보조금 7,500달러 중 절반을 지급
 - ※ 이후 비중 조건을 지속 강화하여 '27년 이후에는 80% 충족이 필수 요건
- (#2)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이차전지 부품(양극재·음극재· 전해액·분리막) 비중이 '23년 50%, '28년에는 90%에 이르는 전기차에만 지급
- 이외에도 '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완성차는 물론 이차전지 업체의 공급 구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 즉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이차전지용 광석과 부품 등을 미국에서만 채굴·제조하여야만 해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 우려를 표명. 국내 업체의 대안 마련이 시급

<보조금 지원 조건 충족을 위한 이차전지 미국산 원자재/부품 최소 비중>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원자재	40%	50%	60%	70%		80%	
부품	50%	60%		70%	80%	90%	100%

자료 : 하나증권, 2022.8.9.

-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업체는 미국 측에 이차전지 관련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재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

-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경우 미국 내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국내 이차전지 3사가 현지 시장 확대, 중국 경쟁사 제외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 의견도 제기

※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밸류체인을 적극 구축중인 국내 3사는 '25년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약 380GWh(전기차 420만 대 규모)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한편 한국 3사 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유일 업체 日 파나소닉은 현재 생산 규모가 40GWh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

그림 1-13 전 세계 이차전지 원자재 제련 시장 점유율 및 국내 업체의 미국 내 생산능력



자료 : IEA, 2022.7. / 언론 자료 정리

- 글로벌 업체들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맞춰 폐배터리)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며 폐배터리 회수율 및 재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집중
-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평균 7~10년 수준임을 감안해 '25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규모를 보이며 본격 개화할 것으로 기대. '25년 3조 원 규모에서 '30년 12조 원, '40년 87조 원으로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SNE리서치, '21년)
- (LG에너지솔루션) '22.4월 국내 이차전지 업체 중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했으며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시장 협업 강화를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7.26일)
 - ※ 해당 법인을 통해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양극재의 주원료인 니켈·코발트·리튬 등을 추출할 예정
- (삼성SDI)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리사이클 연구 랩' 조직을 신설하여 회수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 이어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인 피엠그로우에도 투자를 진행
- (SK On)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 발표
 - ※ 국내 업체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협력사 및 기술 확보 등에 주력하는 모양새
- (CATL) 자회사 비럼프·브룬프라이사이클링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공급망을 이미 구축했으며 '21년 약 6조 원을 투입해 배터리 양극재 생산 및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신규 공장 건설에도 착수
 - ※ 한편 동 사는 주행거리가 700km 이상인 M3P 배터리를 '23년 신규 출시할 것이라 발표(7.25일)해 눈길

2) 이차전지의 성능이 초기 대비 70~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폐배터리로 분류



- (테슬라) 美 네바다 공장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해 매주 50t 이상의 원자재 확보에 성공한 바가 있으며 향후 베를린 등의 유럽 공장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 예고

2) 수출 동향

□ '22.7월 축전지(이차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8.8억 달러 기록

- (품목별) 부분품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완제품 수출 호조로 2개월 만에 성장 전환
 - (축전지 : 8.1억 달러, 14.8%↑) 미국·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 등이 확대되면서 축전지 수출은 8억 달러대를 첫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 축전지 수출 Top3(억 달러, %) : (1위, '22.7월) 8.1, (2위, '22.3월) 7.9, (3위, '22.5월) 7.6
 - (부분품 : 0.7억 달러, △15.3%) 미국(0.1억 달러, 53.1%↑)·헝가리(0.1억 달러, 28.2%↑) 등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홍콩 포함, 0.3억 달러, △24.7%)·폴란드(0.1억 달러, △36.9%) 등의 감소로 6개월 연속 하락
- (지역별) 중국·폴란드 등은 감소한 반면 미국·독일·베트남 등의 수출은 호조 지속
 - 미국(3.7억 달러, 40.0%↑)은 전기차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6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유지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독일(0.9억 달러, 22.7%↑)도 축전지 수출이 회복되면서 5개월 만에 반등
 - 체코(0.2억 달러, 886.6%↑)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체코 생산기지 확대 계획에 따라 축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수출 상위 10위권 내로 재진입

표 1-12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7	8	9	10	11	12	'22.1	2	3	4	5	6	7
축전지	7.9 (31.4)	6.9 (10.8)	7.2 (△20)	6.9 (1.5)	7.3 (7.5)	7.4 (3.4)	7.3 (16.0)	6.9 (10.5)	8.6 (8.7)	8.1 (12.0)	8.3 (14.0)	7.9 (△21)	8.8 (12.0)
축전지	7.1 (36.7)	6.2 (11.5)	6.6 (△1.0)	6.3 (3.2)	6.8 (11.6)	6.7 (6.3)	6.6 (17.3)	6.3 (14.0)	7.9 (11.1)	7.4 (14.6)	7.6 (16.2)	7.3 (△1.5)	8.1 (14.8)
부분품	0.8 (△2.2)	0.7 (5.1)	0.6 (△11.6)	0.6 (△14.5)	0.5 (△26.4)	0.6 (△20.4)	0.7 (2.8)	0.6 (△16.2)	0.7 (△16.3)	0.7 (△12.4)	0.7 (△8.7)	0.6 (△14.1)	0.7 (△15.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미국	27.4	123.9	31.6	미국	3.7	40.0	41.5	21.3	35.6	38.1
2	독일	9.9	-2.3	11.4	독일	0.9	22.7	10.1	5.8	0.9	10.4
3	중국	8.5	-24.9	9.8	베트남	0.5	65.0	6.2	3.3	55.0	6.0
4	폴란드	5.7	-16.4	6.6	중국	0.5	-47.2	6.0	3.8	-30.3	6.8
5	베트남	3.9	2.2	4.5	폴란드	0.3	-45.5	3.6	1.9	-56.1	3.4
6	일본	3.5	5.8	4.0	일본	0.3	4.7	3.3	2.2	14.0	3.9
7	헝가리	2.6	90.9	3.0	대만	0.3	233.2	3.2	1.0	186.5	1.7
8	호주	2.1	41.8	2.4	호주	0.2	9.6	2.4	1.3	-3.2	2.4
9	홍콩	1.8	-37.1	2.0	헝가리	0.2	21.7	2.0	1.9	126.0	3.4
10	프랑스	1.6	32.1	1.9	체코	0.2	886.6	1.9	0.6	651.3	1.1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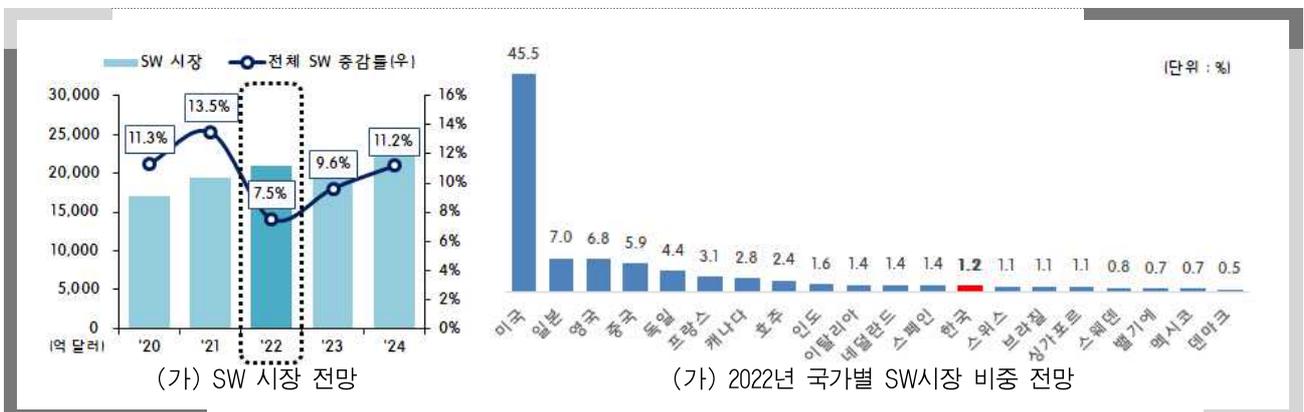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22년 글로벌 SW 시장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신흥국 등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전체 시장) '22년 시장 규모는 IT서비스 및 패키지SW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2조 900억 달러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Gartner, '22.7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나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SW 시장은 확대될 전망
 - IT서비스는 서비스형인프라(IaaS),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 서비스 등이 선전하며 전년 대비 6.2% 증가한 1조 2,0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는 시스템 인프라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 SW 분야 등의 성장에 힘입어 9.6% 늘어난 8,068억 달러로 견조한 증가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국가별) 상위 20개 국가 대부분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북미·신흥국에서 고성장이 예상
 - 45.5% 비중으로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9,516억 달러에 이를 전망. 다른 북미 국가인 캐나다(7위, 증감률 15.2%↑)도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
 - 중국(4위, 증감률 16.4%↑)이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달성하며 인도(9위, 12.4%↑)·브라질(16위, 15.7%↑)·멕시코(18위, 11.8%↑) 등 다른 신흥국도 두 자릿수의 호조세가 예상
 - 국내 SW 시장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261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 내 비중은 1.2%로 상위 20개 국가 중 13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

그림 1-15 전 세계 SW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Gartner, 2022.7.

□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22.2분기 매출 성장세를 기록, 하반기 신사업에 집중할 전망

-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22.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매출 실적을 달성. 하반기에는 물류(삼성SDS), 스마트시티(LG CNS), 데이터 기반 웰리스 플랫폼 개발(SK C&C) 등 신규 사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전망

표 1-14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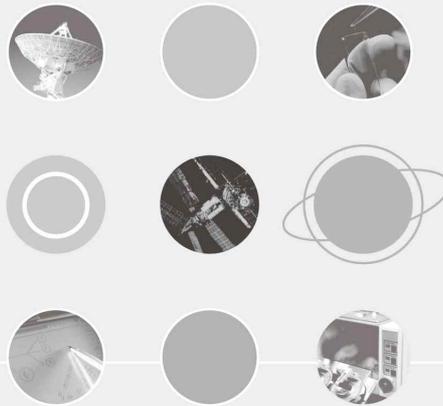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분기 실적) IT서비스 사업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물류 사업이 선전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4조 5,95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2,700억 원으로 선전하면서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8조 7,866억 원 (39.2% ↑), 영업이익은 5,435억 2,449만 원(23.0% ↑)을 기록 -(IT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른 기업 업무시스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산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조 5,109억 원으로 집계 -(물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의 국내외 고객 확대, 글로벌 물류 운임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한 3조 843억 원을 기록 • 셀러노트와 디지털 물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8.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셀러노트의 '쉽다(ShipDa)'와 삼성SDS의 '첼로 스퀘어' 플랫폼 연계를 통한 디지털 기반 엔드투엔드(end-to-end)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쉽다'는 수입 기업의 화물을 직접 책임지고 운송하는 디지털 수입물류 포워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분기 실적) 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스마트물류·AI 등 신규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상회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1조 1,49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어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2조 347억 원(26.7% ↑)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은 1,523억 원(37.7% ↑)을 달성 •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설계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며 관련 기술력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 CNS는 인도네시아 새 수도인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스마트 사업(총 40조~50조 원 규모)을 수주했으며 대중교통 시스템, 전기자동차 도입 등 기본 계획 수립을 담당할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LG CNS가 세종과 부산 등 한국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 컨소시엄의 대표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두루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분기 실적) 디지털·클라우드 사업 수주 등으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5,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선전했으나 영업이익이 일시적 비용 증가 영향으로 2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9,861억 원(14.0% ↑), 영업이익은 1,125억 원(△3.2%)을 기록 • 사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킵웰(KeepWell)'을 출시('22.8.22일)하며 웰니스 시장에 본격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킵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용자의 건강검진 결과(최대 1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건강기능식품, 운동 콘텐츠 등을 추천 ※'킵웰'은 클라우드 온 클라우드(Cloud on Cloud)형 AI-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향후 AI,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킵웰' 참여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다양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II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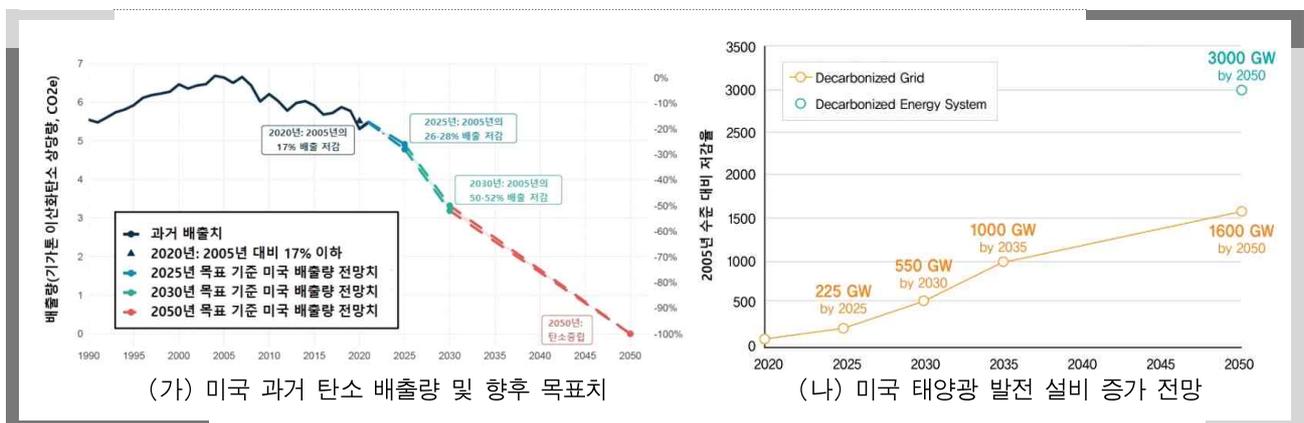
II 트레이드 GPS³⁾

1 미국 - 태양광 모듈

□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투자 확대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은 성장이 기대

- (탄소중립 목표) 미국 정부는 '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했으며 친환경 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태양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52%를 줄이고 '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21.11월)
 -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전력부문 탈탄소화, 연료 전환과 에너지 전환, 산림이나 토양 탄소 흡수 기술을 통한 탄소 격리, 비탄소 배출량 감축 등 5대 정책방향 제시
 - 특히 전력 부문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 기술 비용 하락, 연방 및 지방 정책,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청정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35년까지 100% 청정 전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기존 예상 대비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전력부문에서 '35년 95%, '50년 100% 탈탄소화 할 경우 미국 전체 전력 중 태양광 공급 비중은 현재 3%에서 '35년 40%, '50년 45%로 증가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은 '35년 1,000GW, '50년 약 1,600GW로 확대될 전망(미국 에너지부, '21.9월)

그림 2-1 미국 과거 탄소 배출량/향후 목표치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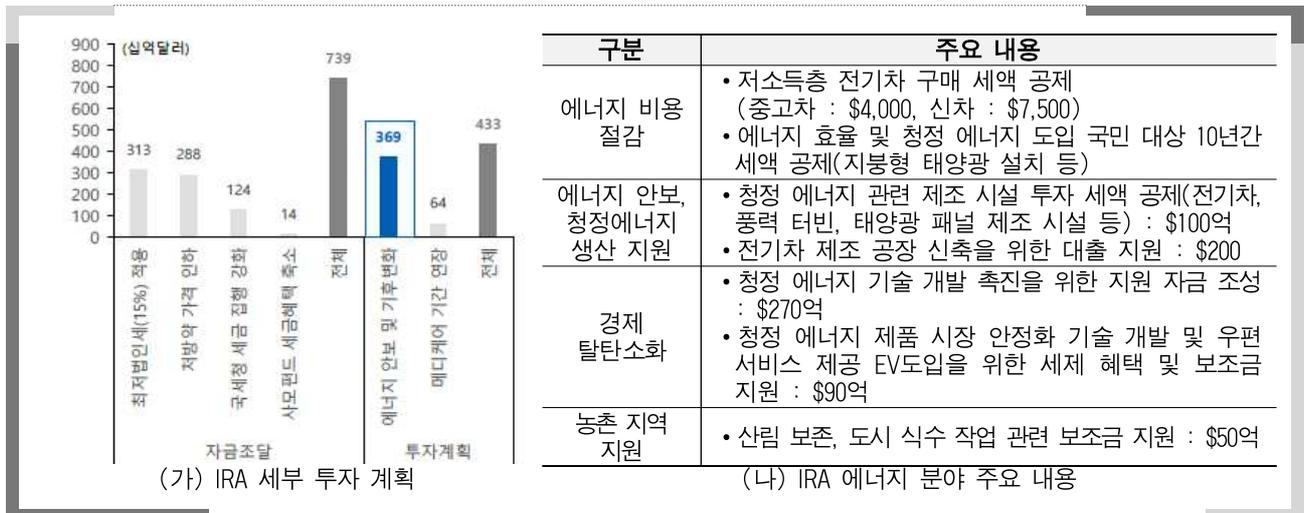
자료 : S&T GPS 재인용, 2021.11.(원소스 미국 국무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인용, 2021.9.(원소스 미국 에너지부)

3)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태양광 비중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는 친환경 발전 인프라 투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인프라 투자) '20.12월 3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부문 지원 정책을 포함한 총 2.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발효됐으며 '21.11월에는 향후 8년간 도로와 교량, 고속 데이터통신망 업그레이드, 전력 인프라 개발 등 인프라 투자에 총 1.2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 법안이 가결
 - '22.8.16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의료보장 확충·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7,3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가결. 동 법안은 '23년부터 향후 10년간 본격 집행될 전망
 -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이 3,690억 달러로 전체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설치기간 측면에서 유리한 태양광 발전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 위 법안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으로 기존 대비 규모가 대폭 축소(△76%)됐으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33% 축소(5,550억 달러→3,690억 달러)에 그쳤으며, 태양광 보조금 제도인 투자세액공제⁴⁾(ITC(10년 연장)), 태양광 세액 공제법(SEMA)⁵⁾ 등이 포함

그림 2-2 미국 IRA 세부 투자 계획 및 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



자료 : 유안타증권 재인용, 2022.8.

- (인센티브 및 세액공제) 미국 연방정부는 ITC, 세금 환급 제도, 저금리 대출 제도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 이 중 ITC는 1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원에서는 상계거래제(Net Metering)⁶⁾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투자를 견인
- 특히 이번 IRA 발효에 따른 ITC의 10년간 연장 및 확대, SEMA 법안 통과 등 태양광 관련 유인 정책이 확대되면서 향후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4) ITC(Investment Tax Credit)는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 투자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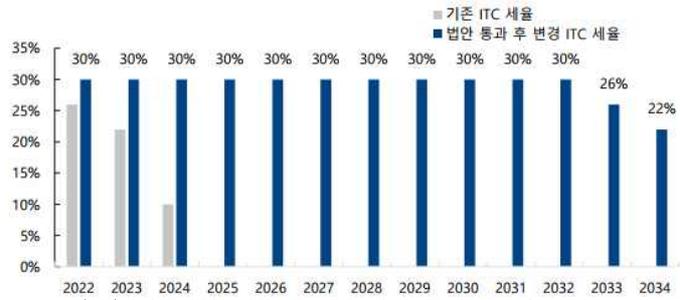
5) SEMA(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Act)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

6) Net Metering은 전력생산자가 자가 소비를 한 후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표 2-1 | IRA 내 태양광 관련 주요 내용 및 ITC 세율 비교

구분	내용
기간 연장 (10년 연장)	기존 '23.12.31일 종료 → IRA '34.12.31일 종료
적용 세율 상향 및 신규 추가	~'22년 26% → 30% 상향
	~'32년 30% 신규 추가
	~'33년 26% 신규 추가
	~'34년 22% 신규 추가

(가) IRA 태양광 관련 주요 내용



(나) 미국 ITC 기존 및 IRA 법안 통과 후 세율 비교

자료 : 하이투자증권 재인용, 2022.8.

□ (참고) 미국 주별 신재생 에너지 주요 지원 제도

○ 미국 각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Net Metering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시장 성장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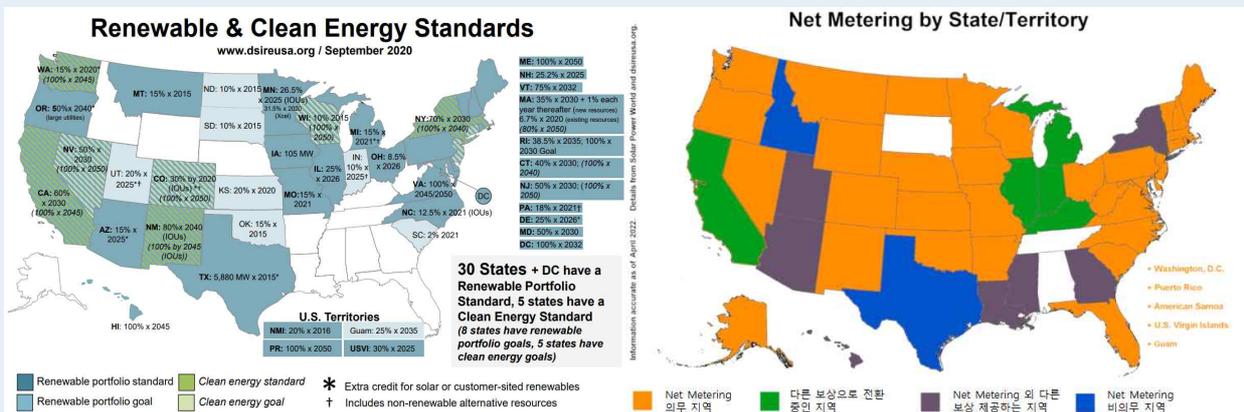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공급의무자들에게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RPS) '20.9월 기준 30개 주 등에서는 RPS를 시행 중이며 대부분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달성 시기를 앞당겼고, 소매판매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 설정. 특히 뉴욕은 40년까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워싱턴 등은 4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전환한다는 목표

- (Net Metering) '22.4월 앨라배마·사우스다코타·테네시 등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보상을 제공.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40개 주에서 Net Metering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애리조나·하와이 등 7개 주에서는 Net Metering 외 다른 보상 제도를 지원

※ 미국 주별 Net Metering 제도 현황 : (의무)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33개 주, (비의무) 아이다호·텍사스 등 2개 주, (다른 보상으로 전환 중) 캘리포니아·일리노이·인디애나·켄터키·미시간 등 5개 주

< 미국 주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요 제도 현황 >



(가) RPS 현황

(나) Net Metering 현황

자료 : DSIRE, 2020.9. / Solar Power World, 2022.4.



- (기타) 미국 내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는 RPS, Net Metering 외에도 신축 주거용 건물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주별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 정책을 시행

< 미국 주별 태양광 주요 지원 제도 >

주	주요 지원 제도
뉴욕	Net Metering, NY-Sun PV Incentive Program, Property Tax Abatement for Photovoltaic
뉴저지	Net Metering, Successor Solar Incentive(SuSI) Program, RPS
애리조나	Solar Equipment Sales Tax Exemption, Property Tax Assessment for Renewable Energy Equipment
캘리포니아	Net Metering, RPS, Property Tax Exclusion for Solar Energy Systems and Solar Plus Storage System
텍사스	Solar PV Rebate Program, Renewable Energy Systems Property Tax Exemption
플로리다	Net Metering, Property Tax Abatement for Renewable Energy Property, Solar and CHP Sales Tax Exemption

자료 : 미래에셋증권 재인용, 2022.5.(원소스 DSIRE)

-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현황) 태양광 발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프로젝트도 확대. '21년 기준 총 12.4GW, 428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텍사스(3.8GW), 캘리포니아(1.2GW) 등 35개 주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 '21년에 신규 건설된 상위 4개 태양광 프로젝트(유니스 솔라 프로젝트(420MW), 주노 솔라 프로젝트(300MW), 그리스우드 프로젝트(255MW), 타이게트 프로젝트(255MW) 등)은 모두 텍사스에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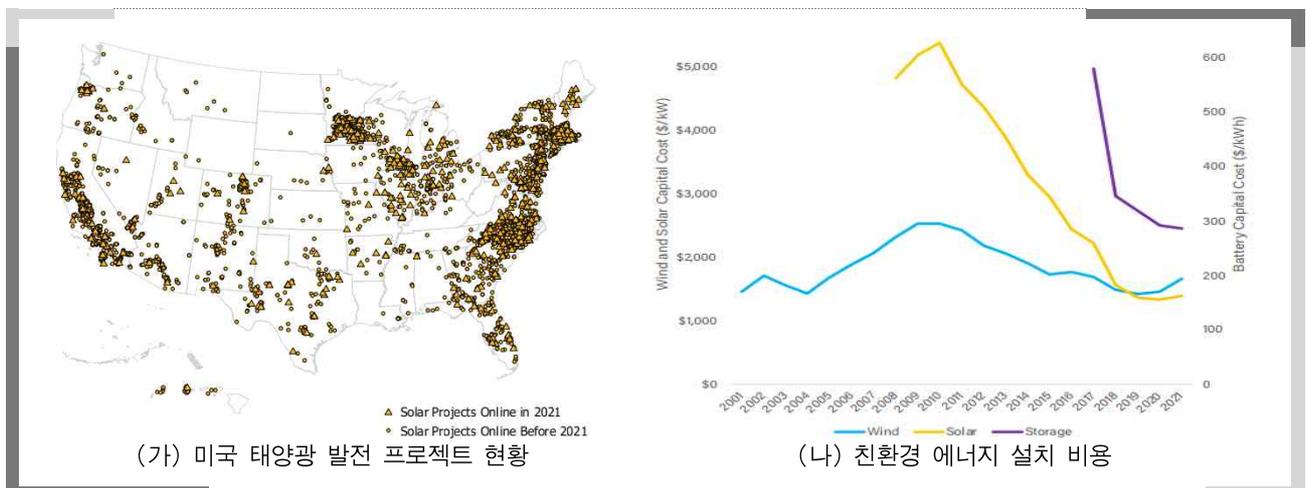
□ 모듈 효율성 향상 등으로 설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현지 수요를 확대

- (가격) 태양광 발전 비용이 10년 간 지속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를 견인

- 태양광 발전 비용은 모듈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규모 증가, 운영 및 유지보수 전략 발전, 출력 성능 향상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약 71% 감소하며 '21년 1,402달러/kW를 기록했으며 재생 에너지 중 가장 낮은 비용(풍력 평균 발전 비용 : 1,670달러/kW)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 다만 상품 가격 상승, 해상 운송료 상승, 무역 제한,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전년 가격 대비 소폭 증가

그림 2-3 |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현황 및 친환경 에너지 설치 비용 추이



자료 : ACP 재인용, 2022.5. / ACP 재인용, 2022.5.(원소스 BNEF, LBN)

□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은 현지 정책 기조 및 가격 동향과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할 전망

- **(현황)** '21년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 달성하며 급증(Wood Mackenzie, '22.3월)
 - '21년 미국 태양광 발전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3.6GW 용량이 설치됐으며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년 설치량(19.2GW)을 상회하는 실적. 이번 미국 태양광 발전 설치량 확대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총 120GW로 확대
 - 특히 미국 신규 발전 용량 중 태양광 설치 비중은 46%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3년 연속 40%를 상회하는 등 태양광 발전 전력 생산량은 미국 총 전력 생산량의 3.9%를 담당
 - 세부 항목별로는 상업용(1,435MW)이 소폭 감소했으나 유틸리티(17GW), 주거용(4.2GW), 커뮤니티(957MW) 등에서 선전. 특히 유틸리티의 경우 '21.4분기에만 4.6GW의 신규 계약이 체결되어 '21년 말까지 누적 설치량은 80.2GW에 도달
 - **(전망)** '22년 태양광 발전 시장은 다소 부진이 예상되나 이후 미국 정부의 친환경 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Wood Mackenzie, '22.3월)
 - '22년 태양광 발전 시장은 공급망 제약과 무역 역풍 등으로 일부 사업이 취소 및 지연되면서 20GW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해소 등 상황 개선에 따라 현재 누적 용량(120GW)에서 연평균 약 30GW 이상의 신규 증설을 통해 '32년에는 464GW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더불어 '22.8월 가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향후 연평균 약 5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설돼 '32년 700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투자세액공제(ITC) 연장 및 기타 청정에너지 조항 등 청정에너지 지원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기본 전망 대비 66%의 설비 증설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그림 2-4 | 미국 태양광 발전 설치량 및 에너지별 신규 발전 설치량 비중 추이



자료 : Wood Mackenzie, SEIA 재인용, 2022.3.

7) 태양광 발전소 또는 집중형 태양열 발전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8)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기타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본을 받고 세금 공제 및 혜택을 제공하는 태양광 농장 등 태양광 발전 설비

□ 우리 태양광 모듈 기업은 현지에서 선전중인 가운데 경쟁력을 강화하며 입지 확대에 총력

- (시장 점유율) '21년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화큐셀(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1위를 달성하면서 3년 이상 선두를 유지(Wood Mackenzie, '22.4월)
 - (주거용) 한화큐셀이 24.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8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달성. 이어 론지(14.8%)·썬파워(10.8%)·LG전자(10.7%)·REC(8.8%) 등이 2~5위를 차지
 - ※ 다만 LG전자는 '22.2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강화에 따른 사업 환경 악화 등으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A/S 등 필요 물량을 위해 2분기까지 생산을 지속해오다 '22.6.30일 공식 종료
 - (상업용) 한화큐셀이 기업용에 이어 상업용 시장에서도 20.6%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3년간 1위를 수성. 이어 JA솔라(11.0%)·진코(9.3%)·트리나(8.6%)·썬파워(8.3%) 등 순으로 상위 5개 기업에 랭크

그림 2-5 2021년 미국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모듈 상위 5개 기업 점유율



자료 : Wood Mackenzie 재인용, 2022.4.

- (국내 기업) 태양광 모듈 기술력과 더불어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

표 2-2 국내 태양광 모듈 관련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한화큐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더불어 증설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량 확대 등으로 현지 시장 경쟁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기술인 '퀀텀 듀오 Z'를 적용해 모듈의 출력을 최대화한 '큐피크 듀오'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국 주거 및 상업용 시장에서 선전. 특히 '21.8월 최대 출력 590Wp인 고효율 모듈 '큐피크 듀오 G11'와 심미성이 중요한 주거용 시장에 블랙 색상의 '큐피크 듀오 블랙' 모듈을 출시하며 시장 수요를 충족 - 한편 미국에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 중인 한화큐셀은 '23.2분기 가동을 목표로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1.4GW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계획. 더불어 태양광 패널과 잉곳·웨이퍼·셀 등을 한자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1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를 검토 • 또한 발전소 운영, 관련 기업 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월 미국 텍사스주에 186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380MWh 규모의 ESS 단지 개발을 진행하며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 - 또한 '20년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기업 그로잉 에너지 랩스(GELI)를 인수해 태양광 발전소 등 분산돼 있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사업 진출을 추진 - '21.11월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기업 랜시움에 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REC실리콘 지분('21.11월 16.7%, '22.3월 4.67%)을 인수하는 등 관련 기업 투자를 통한 태양광 공급망 경쟁력을 확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미국 현지법인을 세우고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21.하반기 국내 음성 공장에 700MW 규모 셀·모듈 생산라인 증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생산량 확대를 도모 • '22.3월에는 국내 최고 출력의 M10 양면모듈을 생산하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향후 선전이 기대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對미국 태양광 모듈 수출은 '22.7월 세 자릿수로 급증하며 다시 성장 가도 진입

- **(누적)** 미국 태양광 모듈 수출은 신재생 프로젝트 지연 및 경쟁 심화 등으로 '1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신재생 발전 투자 재개 등 반등이 기대
 - '17년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억 7,594만 달러를 기록한 對미국 태양광 모듈 수출은 현지 정부의 관세조치,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 심화, 코로나19에 따른 재생에너지 투자 지연 등으로 부진하면서 '21년 전년 대비 19.3% 감소한 7억 2,283만 달러로 '1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
 - '22.7월 누적 기준, 일부 국내 기업의 태양광 사업 종료 및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5억 3,195만 달러로 하락 추세를 지속. 다만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계획에 따른 태양광 모듈 수요 증가로 하락폭은 둔화됐으며 향후 반등도 기대
- **(월별)** '21년 부진한 실적을 지속했으나 미국의 강화된 친환경 기조 및 국내 업체의 현지 공략 강화 등으로 '22.7월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로 반등하면서 주목
 - 對미국 태양광 모듈 수출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20.10월 이후 '22.4월까지 일부 월('21.4월 1.2%↑, 6월 38.7%↑, 11월 3.8%↑)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지속
 - 미 정부의 수입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22.3월)로 중국 기업향 관세 부과가 증가한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22.5월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592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로 반등
 - '22.6월에는 1억 708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월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7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77.5% 증가한 1억 5,467만 달러로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
 - ※ 다만 '22.6월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면서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가능성이 증가(후술 참고)

그림 2-6 | 對미국 태양광 모듈 수출 추이



주 : 태양광 제품은 ICT 분류상 전자부품>반도체>광전자>감광성반도체 소자로 분류

자료 : IITP, KTSPI



□ (참고) 태양광 관련 미국 관세 제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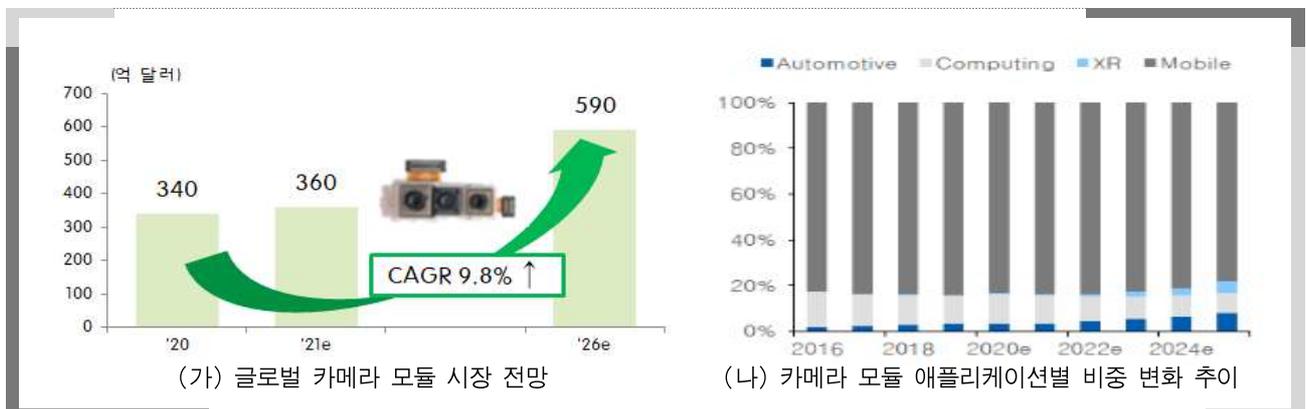
-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산 태양광에 대한 관세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며 중국산 제품을 견제
 - '12년 미국 정부는 자국 태양광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14~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18년에는 수입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 ※ 수입산 태양광 셀에 대해 무관세 쿼터량(저울관세할당, TRQ)을 2.5GW로 설정한 후, 해당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추가 관세(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 등)를 적용
 -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는 '22.2월 미국 정부는 4년 연장을 결정. 다만 태양광 셀 무관세 쿼터량을 5GW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관세율을 매년 인하하기로 했으며, 태양광 모듈 중 양면 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 4년간 적용될 태양광 셀 쿼터량 초과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될 예정
 -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 이후 자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 업체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우회수출과 관세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22.3월)
 - 한편 해당 조사로 미국 기업의 태양광 패널 수입 중단 등으로 미국 전역 318곳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4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22.6.6일)
 - ※ 이는 미국에서 고유가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에너지비용을 낮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자국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논란을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

2 카메라 모듈

□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 판도에 변화의 바람 감지

-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은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XR기기 등의 전방 수요에 주목
 - 프리미엄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트리플·쿼드 등의 멀티 카메라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 모듈의 핵심 수요처로 자리잡았으나 점차 플래그십 제품들의 상향 평준화 및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
 - ※ '22.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9,450만 대 수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Counterpoint, '22.7월)
 - 이에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근 전기차로의 교체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주목. 각 국 정부의 후방카메라 의무 탑재 법안 도입 확대, 자율주행 기술 발달 등으로 스마트폰 대비 평균판매단가, 카메라 탑재 대수 등이 높아 눈길
 - ※ 차량용 카메라는 스마트폰과 달리 움직이는 모든 순간 카메라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해 고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 평균판매단가('21년 기준 35달러)가 스마트폰(10달러) 대비 3배 이상 수준. 또한 차량용 ADAS 기능(사각지대 감지, 어라운드 뷰, 야간 투시 등)도 점차 보편화되면서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7~8개,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수준) 수도 증가(교보증권, '22.5월)
 -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매년 9.8%씩 성장('22~'31년)하여 '31년 319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2.7월)
 - 게다가 최근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에 따라 XR기기 신제품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카메라 모듈 신수요 응용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에 기반해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년 340억 달러 → '26년 590억 달러(CAGR 9.8% ↑) 규모로 성장할 전망(Yole Developpement, '21.10월)

그림 2-7 |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 전망 및 애플리케이션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Yole Developpement, 2021.10. /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자율주행차 기술 고도화에 따라 고부가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 XR기기 시장도 눈길

- (자동차)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ADAS 기능 구현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 차량용 카메라는 크게 360도 전방을 촬영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뷰잉 카메라, 차량 간 충돌을 예방하고 브레이크 및 차선 유지 등을 지원하는 센싱 카메라로 구분
 - ※ 최근에는 차량 내부에 위치해 운전자의 피로도나 운전 패턴 등을 감지하는 인캐빈 카메라 사용도 확대
 - 특히 센싱 카메라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등 인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지닌 카메라 모듈이 필요. ADAS 기능 발달과 함께 고성능 카메라 모듈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최근에는 거울로 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장착해 뒤쪽 환경을 실시간 내부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버추얼 미러 시스템까지 등장하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
 - 게다가 '22년 주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자율주행 시장 고속 성장에 맞춰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상승이 기대

○ (참고) 완성차 업체별 자율주행 기능 출시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20년 71억 달러 → '30년 6,56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 교보증권, '22.5월)

<완성차 업체별 자율주행 기능 출시 현황 및 전망>

	테슬라	현대차	GM	벤츠	BMW	볼보	혼다	스텔란티스
Level 3	22.2Q	22.4Q	22년	22.2Q	22.2H	22.2H	21년	24년
Level 4	24년	26년	-	25년	25년	-	25년	-

자료 : 각 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표 2-3 | 자율주행 기술단계 구분

레벨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시스템 요청시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OR 감가속 중 하나	조향 AND 감가속 동시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 무인 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카메라 수	1개	2개	7~8개	12개	12~15개	15개 이상
상용화시기	완료	완료	완료	2022년	2025년	2025년 이후

자료 : 국토교통부 및 언론 자료 정리

그림 2-8 | ADAS 카메라 기능 예시 및 버추얼 미러 시스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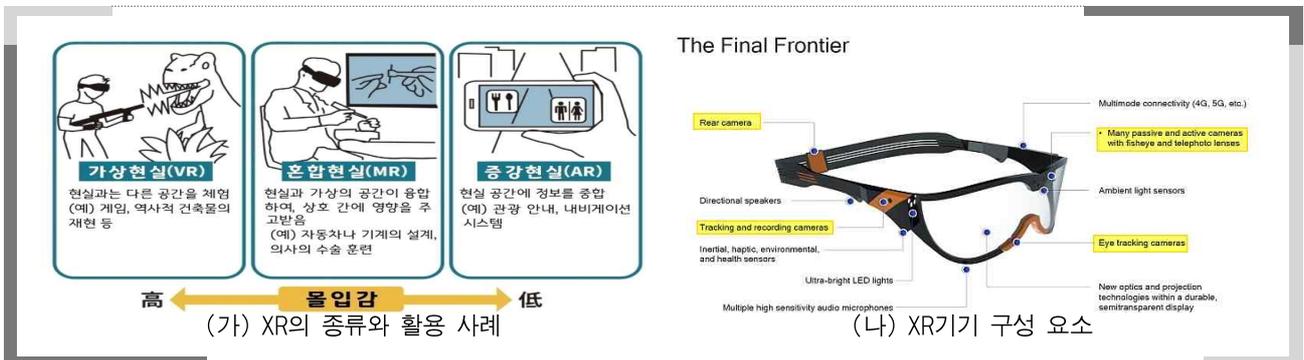
(가) ADAS 카메라 기능 예시

(나) 버추얼 미러 시스템 이미지

자료 : 엠씨넥스, 교보증권, 2022.5. / 언론 자료 인용

- **(XR⁹)기기)** 메타버스 산업 성장으로 XR기기 성장 잠재력에 눈길. 카메라 모듈 시장도 낙수 효과가 기대
 - XR기기는 사용자의 실시간 주변 환경과 움직임·표정·입술모양 등을 감지하여 가상세계에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구현해주는 장치로, 정확하고 미세한 감지 기술이 핵심 요소 중 하나
 - 이러한 이유로 현실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감지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XR기기 내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은 기존 3~4개 수준에서 '22년 이후 약 5~13개로 확대 적용될 전망
 - 게다가 메타버스 산업 발달과 함께 XR기기 업체들의 잇따른 신제품 출시 예고 등으로 전 세계 XR 헤드셋 시장은 '21년 1,100만 대 → '25년 1억 500만 대 규모로 약 10배 급성장할 전망 (Counterpoint Research, '22.1월)
 - 이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현실감과 몰입감을 한층 더 극대화하기 위한 XR기기용 카메라 모듈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 한편 메타(오кул러스)·밸브·HTC·HP·소니 등은 VR기기를, MS는 산업용 AR기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

그림 2-9 | XR의 종류와 활용 사례 및 XR기기 구성 요소



(가) XR의 종류와 활용 사례

(나) XR기기 구성 요소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9)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은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의미



표 2-4 | **글로벌 XR기기 업체 동향**

업체명	주요 현황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년 만에 AR기기 시장에 재도전을 내민 동 사는 현재 개발 중인 AR 헤드셋 '아이리스'를 '24년 출시할 것'이라 예고. 해당 제품은 가상 이미지와 실제 세상을 혼합하여 보여주기 위해 헤드셋 바깥쪽에 카메라가 탑재된 점이 특징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중이었던 혼합현실(MR) 헤드셋 신제품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며 '23년 출시가 유력. 총 15개의 카메라 모듈(3D 센싱, 시선감지 등)이 탑재돼 눈길
Me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공개했던 XR 헤드셋 '프로젝트 캄브리아(총 5개의 카메라 모듈 탑재)'를 '22.9월 내로 출시할 것'이라 예고. 게다가 '24년에는 후속 제품 '핀스턴' 등 총 4종의 VR 헤드셋도 추가 출시할 것'이라 발표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산업용 AR 헤드셋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동 사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22. 하반기 소비자용 시장('홀로렌즈') 첫 진출을 예고
S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2월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공개. 해당 제품은 내장된 전면 카메라를 통해 VR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스루 뷰' 기능 등을 제공해 눈길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글로벌 업체들은 카메라 모듈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며 수익 확대를 모색

- 스마트폰 시장과 더불어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向 등의 카메라 모듈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
 - (中, 서니 유틸리티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동 사는 고객사의 중국산 부품 비중 확대 전략에 따라 '갤럭시Z 폴드4' 후면 카메라 공급사로 첫 진입
 - ※ 이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일부를 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도 추가 공급할 예정
 - (LG이노텍)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LG전자의 구미 A3 공장을 '22.6월 2,834억 원에 인수'기로 결정. 기존 주력하고 있는 애플向 스마트폰과 더불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할 방침
 - ※ 일각에서는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장기간 유지한 만큼 향후 애플 미래차 수주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현재 동 사는 美 테슬라의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21년 기준, 60~70% 비중 차지)이며 최근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 완성차 업체를 겨냥한 대규모 전장부품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상황
 - 전장용 계열사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ZKW 등과 협력하여 멕시코 지역의 생산 기지 확대를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가동하였으며 투트랙(구미·멕시코) 전략을 통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의 입지를 본격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
 - (삼성전기) 中 스마트폰向 수요에 집중하고 있는 동 사는 올해 초 中 코로나 봉쇄 조치, 세트 수요 감소 등으로 다소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2.6월 테슬라의 전기트럭('세미'), 사이버트럭 등 수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해 눈길
 - ※ '21년 30~40%에 불과했던 테슬라向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장용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증가할 전망
 - 한편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각각의 모듈을 조립해 판매하는 중국 업체와 달리 렌즈 설계, 자동 초점, 광학식 손떨림 보정 등 정밀한 하드웨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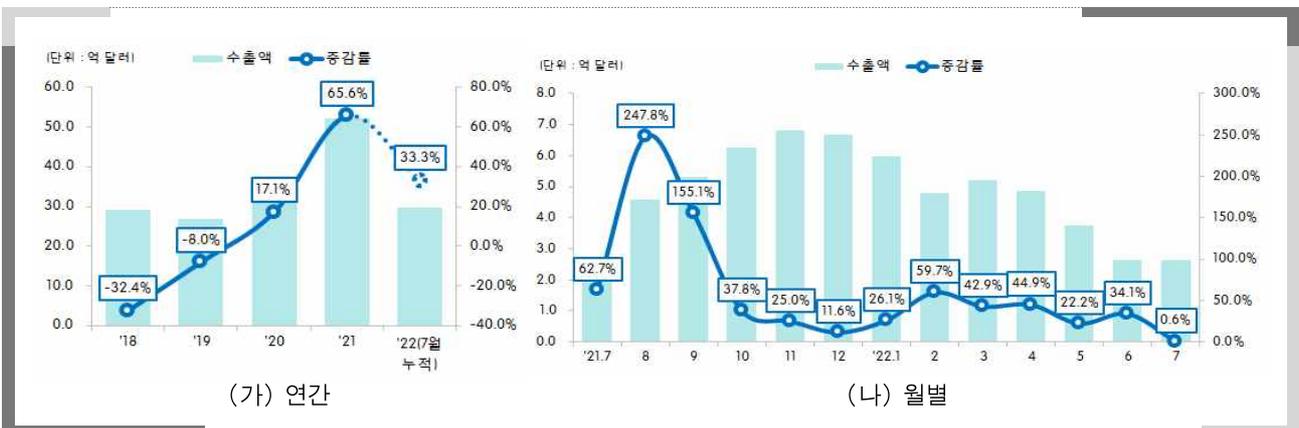
○ (참고)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동향

- 테슬라는 값비싼 라이다(Lidar, 전파 대신 빛을 사용하는 레이더) 장비를 채용하는 구글, GM 등 경쟁사들과는 반대로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초점
- 이는 8개의 카메라와 신경망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사의 독자적인 ADAS '비전' 기술 활용을 확대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되며 '22.2월부터 출시되는 북미형 모델S, 모델X에 ADAS용 레이더(Radar) 대신 카메라 모듈 탑재가 확대되면서 테슬라로 카메라 모듈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수출 동향)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과 맞물려 카메라 모듈 수출도 동반 성장

- 전방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 시장이 新수요처로 주목받으며 전체 수출은 호조세
- (연간) '18년(29.2억 달러, △32.4%) 스마트폰 시장 불황 등으로 카메라 모듈 수출에 냉기류가 확산되면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멀티 카메라가 탑재된 신제품 등장에도 불구하고 '19년까지 (26.9억 달러, △8.0%) 내림세가 지속
- 이후 '20년(31.4억 달러, 17.1%↑)부터는 전기자동차 및 ADAS 기능 보급 확대 등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등. 특히 '21년 수출(52.1억 달러, 65.6%↑)은 '06년 이래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2년(7월 누적, 29.9억 달러, 33.3%↑)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월별) '21년 하반기 전방 업체의 신제품 출시, IT기기 수요 증가 등으로 '21.8월(4.6억 달러, 247.8%↑)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6.8억 달러, 25.0%↑)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
- 이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가속, 자율주행 기술 발달 등으로 '22.7월(2.6억 달러, 0.6%↑)까지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그림 2-10 | 카메라 모듈 수출 추이



주 : 카메라 모듈 수출은 '22년부터 삭제된 HSK CODE 8525801090, 8529909910와 '22년 신규 HSK CODE 8525801090, 8529909910을 합한 값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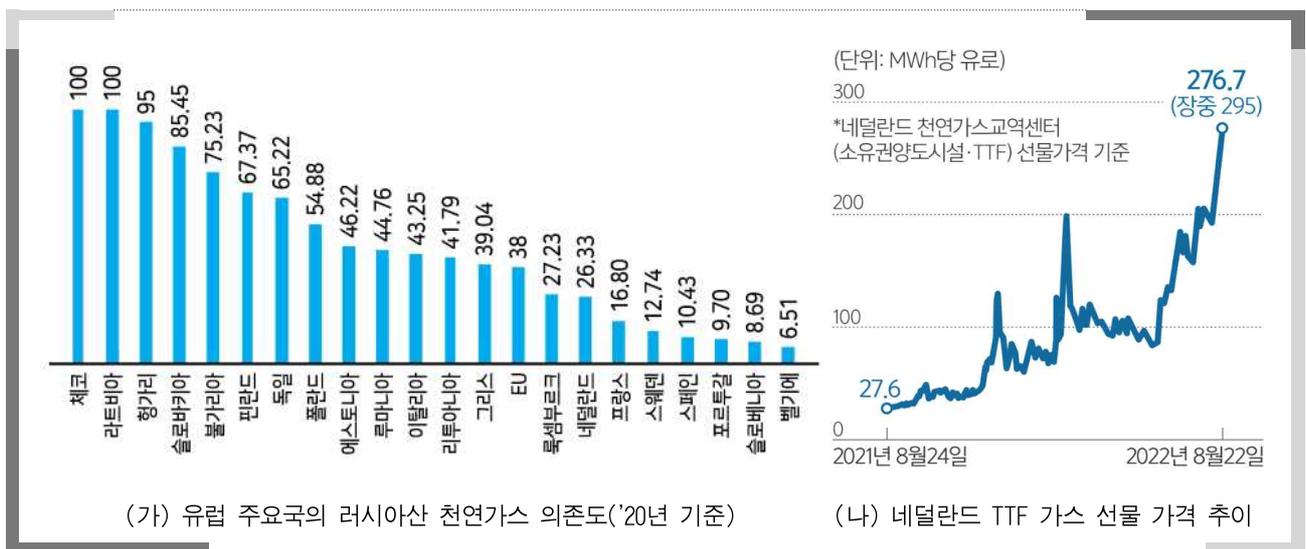


3 Ex-Briefing

□ 러시아가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경제 타격 등이 우려

- 러시아는 유지 보수를 이유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가동을 중단
 - 러시아 국영 가스업체인 가스프롬은 '22.8.19일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8.31~9.2일까지 3일간 중단한다고 발표
 - 가스프롬은 이 기간 가스관(‘트렌트 60’ 가스 압축기 등) 유지 보수 및 고장 예방 등을 위해 포르토바야 가압기지에서 사흘간 점검을 시행하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현재 공급 물량(하루 3,300만m³)에 맞춰 가스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 반면 유럽은 러시아의 이번 공급 중단에 대해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분석
 -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20년 기준 유럽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 비중은 약 38%를 차지(헤럴드 경제, '22.2.23일, 원소스 유로스탯)
- 한편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점검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가스 공급량 감축 및 공급 중단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유럽향 가스 공급을 줄이며 에너지 위기를 증폭
 - 가스프롬은 '22.6월 중순부터 캐나다에서 수리를 마친 가스관 터빈이 서방의 제재 영향으로 반환이 지연됐다고 밝히며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을 용량의 40%까지 축소 러시아는 가스 공급 정상화를 원한다면 제재를 풀라고 요구했으나 독일 등 유럽은 이를 거부

그림 2-11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및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 추이



자료 : 헤럴드 경제, 2022.2.23.(원소스 유로스탯) / 세계일보, 2022.8.23.(원소스 영국 ICE 선물거래소)

- 이후 '22.7.11~21일까지 열흘간 연례 점검을 이유로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27일에는 정비 문제를 이유로 공급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로 또다시 감축
- 한편 EU는 이에 대응해 지역 내 가스전 개발 투자 확대 및 천연가스 수입처를 다각화하며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을 연초 40% → 현재 20%로 감축하고 있으나 유럽 폭염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동절기 비축량 확보 등으로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및 유럽 경제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
 -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발표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9월 선물 기준)은 '22.8.22일 276.7유로/mwh로 2주전인 8.9일(192.2유로/mwh) 대비 44.0% 폭등
 -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2.2.23일(87.5유로/mwh) 대비 3배, 약 1년 전인 '22.8.24일(27.6유로/mwh) 대비 10배 이상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영국 ICE 선물거래소)
 - 더불어 가스프롬은 '22.8.16일 이번 겨울 유럽의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우드맥켄지도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이 계속 축소되고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경우 '23.2월 유럽 천연가스 비축량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
 - ※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은 2,500달러/1,000m³ (약 329만 원)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겨울에는 4,000달러 /1,000m³(약 525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가스프롬, '22.8월)
 - 또한 천연가스는 유리,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소재 생산에 활용되며 특히 유럽 내 각종 소재를 공급하는 독일의 철강 화학 산업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 철강·화학·소재 공장에 타격이 발생하는 등 유럽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
 - 스위스 은행 UBS는 이번 겨울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의 국내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23년 말 유럽 GDP의 약 6%가 하락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
- 유럽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여파로 미국·아시아 등 다른 지역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등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감축의 영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양상
 -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와 유럽 수출 증가 등으로 미국 천연가스 9월물 선물 가격은 '22.8.16일 9.329달러/MMBTU(100만 BTU¹⁰⁾)로 '08.8월 이후 14년만의 최고가로 인상. 특히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졌던 '20.6월(1.48달러/MMBTU) 대비 525% 폭등(연합뉴스, '22.8.18일, 원소스 CNN 비즈니스)
 -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현물가격지표(JKM)도 '22.8.18~19일 57.6달러/MMBTU를 기록, '22.5.16일(21.9달러/MMBTU)과 비교해 2.6배 급등. 이는 일본 등의 겨울 비축량 확보와 더불어 유럽 내 가스 수요가 아시아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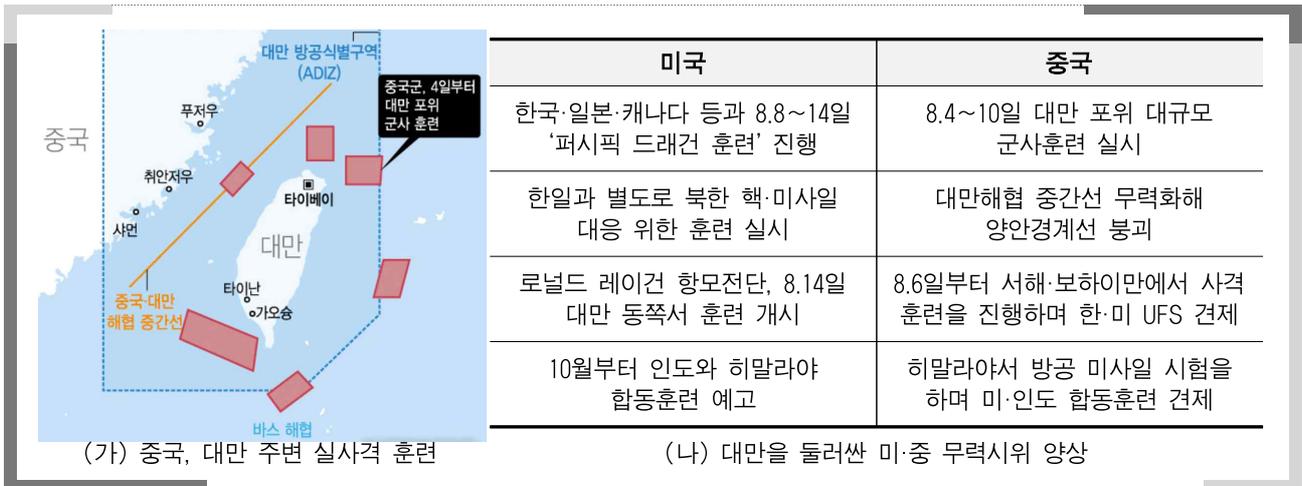
10) BTU(British thermal unit)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서 1파운드의 물을 대기압 하에서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단위



□ 미국, 대만과 무역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대만은 '22.8.17일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약체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 출범에 합의했으며 올 가을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
 - '22.6.1일 미국과 대만은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공식 협상은 기존 합의의 연장선
 -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2.5월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제외된 뒤 미국은 '22.6.1일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
 -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올 가을 무역 협정 비준을 위한 공식적인 무역협상 라운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 등이 참여할 전망
 - 해당 이니셔티브는 무역 절차 간소화, 부패 방지 기준 마련, 차별적인 무역장벽 철폐, 디지털·농업 무역 확대 등 11개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 특히 비시장적 무역 관행과 국유기업 우대 관련 대책도 논의할 예정으로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분야로 풀이
 - 다만 이번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 등 대만이 기대하는 FTA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대만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양국간 연계 강화 및 중국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분석(니혼게이자이신문)
-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만 인근 지역에서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을 과시
 - 미국과 대만의 이니셔티브 발표 다음날인 6.2일 중국 정부는 자국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적 성격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어떤 형태의 왕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최근 행보가 하나의 중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3일)에 앞서 중국은 8.2일 이에 항의하는 군사적 대응 조치로 대만 인근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원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 8.4~7일까지 대만 해역 부근 6개면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
 -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 협상 이후인 8.18일 중국 군용기 및 함대가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 나타났으며 8.20일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에서 중국군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초저공비행 훈련을 진행
 - 한편 미국 국무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착하지만 향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인근 동맹국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대응을 진행·예고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무력 충돌 긴장감으로 고조

그림 2-12 | 중국, 대만 주변 실사격 훈련 및 대만을 둘러싼 미·중 무력시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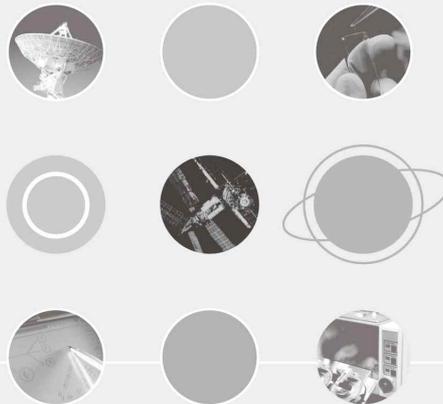
자료 : 뉴시스, 2022.8.4.(원소스 신화망, 대만국방부) / 서울신문, 2022.8.17.

□ 중국, 무더위에 따른 계획 정전이 확산되면서 현지 공장 가동 중단 등 생산 차질 우려

-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사천성을 시작으로 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등에서 계획 정전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 내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 피해가 우려
 - 사천성 정부는 무더위 및 강우량 감소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내 21개 도시 중 19곳의 공업용 전력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22.8.15~20일 생산 활동 전면 중단을 명령'(22.8.14일)
 -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BOE, 배터리 업체 CATL,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등이 이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제조업 공장을 포함해 총 1만 6,500개 기업이 정전의 영향을 받아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계획 정전은 사천성과 더불어 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등에서도 진행되는 등 상반기 코로나19 봉쇄조치에 이어 전력난에 따른 조업 제한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 정체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Ⅲ 부록



Ⅲ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17,226	8.8	100.0	455,655	6.4	100.0	2,270,001	9.5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6	320,672	7.4	70.4	1,599,829	11.9	70.5
- 전자부품	2,301,413	12.4	44.1	195,950	7.2	43.0	986,556	12.3	43.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7,029	21.2	3.7	81,367	27.0	3.6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2,767	5.8	7.2	169,543	11.7	7.5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8,171	13.7	1.8	42,210	22.6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28,536	9.2	14.0	66,755	4.9	14.7	320,153	6.2	14.1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4,815	4.5	16.2	72,040	2.8	15.8	356,619	2.3	15.7
- 통신서비스	374,162	0.9	7.2	31,644	2.6	6.9	156,273	1.6	6.9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6	1.9	8,509	2.6	1.9	42,082	1.2	1.9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1.7	4.8	21,272	2.3	4.7	105,003	1.6	4.6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390	-0.4	0.4	1,864	7.1	0.4	9,188	4.2	0.4
- 방송서비스	202,591	3.2	3.9	17,832	3.4	3.9	88,530	3.6	3.9
· 지상파방송서비스	37,103	8.7	0.7	3,192	-5.4	0.7	15,971	0.8	0.7
· 유료방송서비스	71,716	3.6	1.4	6,341	8.3	1.4	31,731	9.6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3,220	0.8	1.8	8,264	3.6	1.8	40,623	0.4	1.8
· 기타방송서비스	554	1.0	0.0	35	-18.3	0.0	205	-3.3	0.0
- 정보서비스	268,062	11.1	5.1	22,564	2.6	5.0	111,817	2.4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42,542	8.7	0.8	3,755	6.8	0.8	18,983	8.8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5,520	11.6	4.3	18,809	1.8	4.1	92,834	1.1	4.1
○ 소프트웨어	688,346	3.6	13.2	62,943	5.5	13.8	313,553	6.6	13.8
- 패키지 소프트웨어	136,410	3.9	2.6	13,574	-2.8	3.0	62,806	-6.1	2.8
- 게임 소프트웨어	142,195	0.8	2.7	13,408	13.7	2.9	64,743	8.2	2.9
- IT 서비스	409,741	4.5	7.9	35,961	6.1	7.9	186,004	11.0	8.2

자료 : KEA, KAIT, 2022.8.



2 2022년 7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4,111.6	1,417.8	15.7	4,261.8	875.9	18.1	-150.3	541.8
1/4분기	1,734.0	617.1	26.1	1,770.9	365.8	18.3	-36.9	251.4
2/4분기	1,770.5	607.2	12.3	1,837.2	378.0	18.5	-66.7	229.2
상반기	3,504.6	1,224.3	18.8	3,608.1	743.7	18.4	-103.6	480.6
1월	554.6	196.1	20.4	603.6	123.3	14.4	-49.0	72.8
2월	541.5	188.5	23.5	531.3	113.9	23.9	10.2	74.6
3월	637.9	232.6	33.6	635.9	128.6	17.4	1.9	104.0
4월	578.5	199.3	16.9	603.3	121.4	12.5	-24.8	77.9
5월	615.8	201.9	13.9	631.9	126.1	19.8	-16.1	75.8
6월	576.3	206.0	6.8	602.0	130.5	23.3	-25.7	75.5
7월	607.0	193.4	-0.7	653.7	132.2	16.8	-46.7	61.2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19,341	-0.7	100.0	141,775	15.7	100.0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4,373	1.2	74.3	102,691	16.6	72.4
- 반도체	128,699	28.4	56.5	11,380	3.1	58.8	80,903	18.0	57.1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6,175	-13.5	31.9	48,633	10.9	34.3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684	40.4	24.2	28,622	36.8	20.2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1,996	-4.7	10.3	14,703	14.2	10.4
- 전자관	5	17.1	0.0	0	-14.5	0.0	3	41.1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183	-13.3	0.9	1,290	-6.9	0.9
PCB	5,790	15.1	2.5	517	-2.5	2.7	3,649	14.7	2.6
- 접속부품	3,338	17.0	1.5	277	-9.5	1.4	2,007	3.2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2	-16.1	0.1	89	-2.3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1,207	-21.9	6.2	11,334	28.0	8.0
- 컴퓨터	2,293	11.3	1.0	87	-58.1	0.5	606	-51.6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1,120	-16.3	5.8	10,727	41.1	7.6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107	52.0	0.6	778	104.9	0.5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43	15.9	0.2	274	5.8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874	-22.2	4.5	9,025	41.8	6.4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160	-3.5	6.0	9,884	10.2	7.0
- 통신기기	16,171	22.4	7.1	931	-19.3	4.8	8,969	3.8	6.3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97	14.9	0.5	705	35.5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833	-22.0	4.3	8,264	1.7	5.8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680	-29.2	3.5	7,341	-1.1	5.2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229	367.6	1.2	916	182.2	0.6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176	-21.9	0.9	1,325	-5.9	0.9
- 영상기기	1,528	-14.4	0.7	107	-26.3	0.6	803	-14.0	0.6
· TV	1,065	-27.7	0.5	64	-36.4	0.3	505	-24.1	0.4
LCD TV	34	-82.9	0.0	5	87.3	0.0	33	91.8	0.0
TV 부분품	1,014	-13.0	0.4	58	-40.0	0.3	462	-27.6	0.3
· 셋탑박스	22	66.0	0.0	1	-54.6	0.0	12	-11.1	0.0
- 음향기기	802	-0.1	0.4	65	-14.0	0.3	500	10.4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4	-11.0	0.0	22	0.4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425	5.1	12.5	16,541	8.7	11.7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492	-7.6	2.5	3,848	20.6	2.7
-사무용기기	427	25.0	0.2	25	-37.3	0.1	186	-26.5	0.1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26	3.7	1.2	1,609	12.5	1.1
-전기 장비	11,920	14.2	5.2	1,201	11.3	6.2	7,691	10.0	5.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893	12.0	4.6	5,656	9.6	4.0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3,220	16.8	100.0	87,593	18.1	100.0
○ 전자부품	74,610	21.0	55.3	7,989	23.2	60.4	51,250	27.7	58.5
- 반도체	61,719	21.9	45.7	6,714	25.0	50.8	42,545	29.0	48.6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2,193	15.3	16.6	15,439	42.1	17.6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3,778	36.4	28.6	21,921	26.3	25.0
- 디스플레이	3,869	1.3	2.9	461	41.8	3.5	3,166	53.0	3.6
- 전자관	64	14.5	0.0	4	24.2	0.0	38	7.2	0.0
- 수동부품	2,800	25.6	2.1	222	-11.9	1.7	1,567	-3.5	1.8
PCB	3,101	31.2	2.3	311	16.4	2.4	2,068	28.4	2.4
- 접속부품	2,518	16.1	1.9	199	-8.7	1.5	1,423	-5.8	1.6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69	82.5	0.5	389	64.7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501	12.9	11.4	10,707	9.8	12.2
- 컴퓨터	10,233	28.7	7.6	882	17.1	6.7	6,498	7.4	7.4
- 주변기기	6,516	19.1	4.8	619	7.4	4.7	4,208	13.6	4.8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110	39.8	0.8	861	39.1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73	-9.3	0.6	570	-1.6	0.7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317	2.0	2.4	2,004	10.6	2.3
○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075	-14.3	8.1	8,342	-4.7	9.5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012	-16.4	7.7	7,860	-6.9	9.0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68	-16.0	1.3	1,054	-16.0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844	-16.4	6.4	6,806	-5.3	7.8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554	-23.7	4.2	4,596	-12.2	5.2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62	41.2	0.5	481	55.0	0.5
○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295	3.2	2.2	2,170	-5.2	2.5
- 영상기기	2,464	14.9	1.8	172	1.9	1.3	1,335	-7.5	1.5
· TV	1,891	18.2	1.4	112	-8.2	0.8	943	-17.2	1.1
LCD TV	929	40.0	0.7	55	-2.0	0.4	488	-11.1	0.6
TV 부분품	575	-29.7	0.4	30	-19.2	0.2	274	-28.9	0.3
· 셋탑박스	214	11.0	0.2	20	10.0	0.2	127	21.6	0.1
- 음향기기	1,099	9.5	0.8	103	18.2	0.8	659	2.8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19	-33.7	0.1	176	-14.5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361	19.7	17.9	15,126	14.4	17.3
-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448	12.3	3.4	2,939	7.1	3.4
- 사무용기기	33	2.5	0.0	3	73.9	0.0	21	9.7	0.0
- 의료용기기	2,287	4.8	1.7	189	-5.3	1.4	1,359	4.7	1.6
- 전기 장비	8,256	39.8	6.1	965	46.0	7.3	5,919	34.8	6.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625	83.8	4.7	3,455	75.1	3.9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19,341	13,220	6,120	54,182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4,373	7,989	6,384	51,441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11,380	6,714	4,666	38,358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6,175	2,193	3,982	33,194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684	3,778	906	6,701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1,996	461	1,535	11,538
- 전자관	5	64	-59	0	4	-4	-35
- 수동부품	2,344	2,800	-456	183	222	-38	-277
PCB	5,790	3,101	2,689	517	311	205	1,581
- 접속부품	3,338	2,518	820	277	199	78	584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2	69	-57	-29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1,207	1,501	-294	627
- 컴퓨터	2,293	10,233	-7,940	87	882	-795	-5,892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1,120	619	501	6,519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107	110	-3	-84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43	73	-30	-296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874	317	556	7,021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160	1,075	85	1,543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931	1,012	-81	1,108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97	168	-71	-349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833	844	-11	1,458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680	554	126	2,745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229	62	167	434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176	295	-118	-844
- 영상기기	1,528	2,464	-936	107	172	-65	-532
· TV	1,065	1,891	-826	64	112	-48	-438
LCD TV	34	929	-895	5	55	-50	-455
TV 부분품	1,014	575	439	58	30	28	188
· 셋탑박스	22	214	-192	1	20	-19	-115
- 음향기기	802	1,099	-297	65	103	-38	-15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4	19	-16	-15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425	2,361	64	1,416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492	448	45	909
- 사무용기기	427	33	394	25	3	22	165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26	189	37	250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201	965	236	1,77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893	625	267	2,20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19,341	-0.7	100.0	141,775	15.7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4,888	-0.4	77.0	108,976	16.0	76.9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8,352	-8.2	43.2	62,808	8.7	44.3
- 일 본	4,314	10.7	1.9	339	-5.4	1.8	2,663	8.9	1.9
- ASEAN	49,033	21.0	21.5	4,699	12.4	24.3	31,889	25.6	22.5
· 싱가포르	4,775	47.8	2.1	699	67.2	3.6	4,111	62.0	2.9
· 인 니	893	14.7	0.4	81	34.7	0.4	650	31.2	0.5
· 말 련	2,507	19.3	1.1	260	6.1	1.3	1,719	23.9	1.2
· 태 국	1,354	19.8	0.6	134	22.4	0.7	932	21.9	0.7
· 베트남	35,133	18.0	15.4	3,102	5.7	16.0	21,573	20.0	15.2
- 대 만	12,671	59.6	5.6	1,180	8.7	6.1	8,960	32.8	6.3
- 인 도	2,781	25.2	1.2	286	40.7	1.5	2,424	67.5	1.7
○ 북미	28,776	26.4	12.6	2,547	-7.0	13.2	18,438	16.5	13.0
- 미 국	27,947	26.5	12.3	2,410	-9.2	12.5	17,753	15.3	12.5
- 캐나다	714	21.2	0.3	123	61.3	0.6	608	65.8	0.4
○ 유럽	15,286	21.6	6.7	1,268	9.7	6.6	10,033	16.9	7.1
- 유럽연합	12,771	22.8	5.6	1,095	12.9	5.7	8,628	20.6	6.1
· 독 일	3,522	21.9	1.5	280	18.1	1.4	2,132	8.1	1.5
· 프랑스	844	41.9	0.4	66	9.1	0.3	564	24.3	0.4
· 이탈리아	469	43.0	0.2	53	29.9	0.3	379	35.6	0.3
- 영 국	1,044	23.5	0.5	87	56.4	0.4	735	21.5	0.5
- 러시아	791	9.1	0.3	34	-54.2	0.2	300	-32.0	0.2
○ 중동	1,593	-5.2	0.7	142	13.5	0.7	976	4.5	0.7
- 사우디	228	-4.0	0.1	32	65.6	0.2	173	36.2	0.1
- UAE	493	-13.4	0.2	46	18.7	0.2	286	-4.7	0.2
○ 중남미	4,304	13.1	1.9	420	1.8	2.2	2,750	5.9	1.9
- 브라질	1,457	0.5	0.6	113	-5.9	0.6	892	-3.5	0.6
- 멕시코	2,511	19.4	1.1	282	7.0	1.5	1,685	15.5	1.2
- 칠 레	120	49.5	0.1	5	-51.6	0.0	45	-38.5	0.0
○ 대양주	721	1.4	0.3	55	-22.2	0.3	439	0.9	0.3
- 호 주	618	-2.5	0.3	49	-7.9	0.3	385	3.7	0.3
○ 아프리카	309	10.1	0.1	18	-20.7	0.1	157	-16.8	0.1
※ 브릭스	82,033	22.0	36.0	7,445	4.7	38.5	52,345	19.4	36.9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3,220	16.8	100.0	87,593	18.1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1,575	24.0	87.6	74,023	20.5	84.5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670	-3.0	35.3	37,285	18.2	42.6
- 일 본	11,978	14.9	8.9	1,224	25.0	9.3	7,303	11.4	8.3
- ASEAN	23,339	13.5	17.3	1,998	2.8	15.1	14,827	11.0	16.9
· 싱가포르	4,079	3.5	3.0	280	-20.9	2.1	2,397	3.0	2.7
· 인 니	925	94.8	0.7	68	-5.0	0.5	465	-8.3	0.5
· 말 련	3,601	9.9	2.7	321	9.0	2.4	2,246	8.4	2.6
· 태 국	2,007	29.9	1.5	182	10.0	1.4	1,278	7.9	1.5
· 베트남	11,177	14.7	8.3	997	11.5	7.5	7,452	16.9	8.5
- 대 만	17,770	31.6	13.2	2,049	29.0	15.5	12,909	30.2	14.7
- 인 도	105	31.8	0.1	10	3.6	0.1	69	11.1	0.1
○ 북미	9,087	8.6	6.7	764	-1.6	5.8	5,226	-2.6	6.0
- 미 국	8,720	8.5	6.5	733	-1.4	5.5	4,987	-3.4	5.7
- 캐나다	246	4.3	0.2	20	-12.8	0.2	160	16.8	0.2
○ 유럽	7,925	12.8	5.9	744	4.8	5.6	4,940	10.5	5.6
- 유럽연합	6,880	12.9	5.1	655	8.3	5.0	4,336	12.4	5.0
· 독 일	3,283	11.4	2.4	313	9.1	2.4	2,071	10.3	2.4
· 프랑스	929	24.0	0.7	103	46.0	0.8	649	48.4	0.7
· 이탈리아	356	1.4	0.3	26	-6.4	0.2	196	-10.4	0.2
- 영 국	562	9.3	0.4	53	-12.2	0.4	322	-2.1	0.4
- 러시아	25	18.0	0.0	1	-51.7	0.0	10	-38.8	0.0
○ 중동	655	18.6	0.5	51	37.1	0.4	432	2.2	0.5
- 사우디	2	53.2	0.0	0	-96.8	0.0	0	-75.8	0.0
- UAE	43	-41.5	0.0	0	-90.1	0.0	5	-84.0	0.0
○ 중남미	985	10.7	0.7	75	-4.1	0.6	542	-0.8	0.6
- 브라질	16	42.8	0.0	0	-26.0	0.0	5	-63.4	0.0
- 멕시코	965	11.2	0.7	74	-4.2	0.6	535	0.7	0.6
- 칠 레	1	-25.0	0.0	0	149.8	0.0	1	54.2	0.0
○ 대양주	115	26.1	0.1	11	-23.8	0.1	59	-13.6	0.1
- 호 주	79	28.4	0.1	8	-32.8	0.1	46	0.2	0.1
○ 아프리카	18	-66.0	0.0	1	2.4	0.0	10	-21.6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643	-1.4	35.1	36,700	18.0	41.9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19,341	13,220	6,120	54,182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4,888	11,575	3,313	34,953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8,352	4,670	3,682	25,524
- 일 본	4,314	11,978	-7,664	339	1,224	-885	-4,640
- ASEAN	49,033	23,339	25,694	4,699	1,998	2,701	17,062
· 싱가포르	4,775	4,079	696	699	280	419	1,714
· 인 니	893	925	-33	81	68	13	185
· 말 련	2,507	3,601	-1,094	260	321	-61	-527
· 태 국	1,354	2,007	-653	134	182	-49	-346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3,102	997	2,105	14,121
- 대 만	12,671	17,770	-5,099	1,180	2,049	-868	-3,949
- 인 도	2,781	105	2,676	286	10	276	2,355
○ 북미	28,776	9,087	19,689	2,547	764	1,783	13,211
- 미 국	27,947	8,720	19,228	2,410	733	1,677	12,766
- 캐나다	714	246	468	123	20	103	448
○ 유럽	15,286	7,925	7,360	1,268	744	524	5,094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1,095	655	440	4,292
· 독 일	3,522	3,283	238	280	313	-33	61
· 프랑스	844	929	-85	66	103	-38	-86
· 이탈리아	469	356	113	53	26	28	182
- 영 국	1,044	562	482	87	53	33	414
- 러시아	791	25	766	34	1	33	290
○ 중동	1,593	655	939	142	51	91	544
- 사우디	228	2	226	32	0	32	173
- UAE	493	43	450	46	0	45	282
○ 중남미	4,304	985	3,320	420	75	345	2,208
- 브라질	1,457	16	1,441	113	0	113	887
- 멕시코	2,511	965	1,546	282	74	208	1,150
- 칠 레	120	1	119	5	0	5	45
○ 대양주	721	115	607	55	11	44	380
- 호 주	618	79	538	49	8	42	339
○ 아프리카	309	18	291	18	1	17	147
※ 브릭스	82,033	58,620	23,413	7,445	4,643	2,802	15,644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57	23.5	100.0	1,120	12.2	100.0	6,017	7.3	100.0
○ 전자부품	3,468	32.9	27.6	336	18.8	30.0	1,755	14.8	29.2
- 반도체	2,463	31.2	19.6	240	23.0	21.4	1,317	22.9	21.9
- 디스플레이 패널	327	33.9	2.6	12	-58.0	1.1	78	-49.7	1.3
- 전자관	1	39.3	0.0	0	10.6	0.0	0	-13.7	0.0
- 수동부품	173	49.9	1.4	35	117.8	3.2	98	38.2	1.6
- PCB	209	38.1	1.7	18	-0.8	1.6	103	9.6	1.7
- 접속부품	258	31.1	2.1	26	22.3	2.3	131	9.4	2.2
- 기타 전자부품	36	50.6	0.3	5	52.6	0.4	26	76.4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37	20.4	19.4	234	21.3	20.9	1,284	16.4	21.3
- 컴퓨터	1,681	21.4	13.4	149	13.2	13.3	788	4.2	13.1
- 주변기기	755	18.2	6.0	85	38.9	7.6	496	43.0	8.2
· 디스플레이장치	216	33.2	1.7	22	31.1	1.9	124	35.5	2.1
· 프린터(부품포함)	142	10.2	1.1	12	7.8	1.1	69	1.4	1.1
· 보조기억장치	184	6.2	1.5	12	-28.4	1.1	67	-26.2	1.1
· 저장 매체	34	8.3	0.3	24	770.3	2.1	148	855.5	2.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80	25.2	1.4	15	12.7	1.4	87	8.4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751	15.6	21.9	188	-6.8	16.8	1,130	-7.4	18.8
- 통신기기	2,611	15.3	20.8	187	-2.0	16.7	1,126	-2.6	18.7
· 유선통신기기	538	7.9	4.3	42	3.3	3.8	237	3.1	3.9
· 무선통신기기	2,073	17.4	16.5	113	-24.5	10.1	710	-23.3	11.8
- 방송국용 기기	132	22.1	1.1	9	-9.3	0.8	50	-17.7	0.8
○ 영상 및 음향기기	836	21.4	6.7	73	16.4	6.6	383	1.5	6.4
- 영상기기	402	19.2	3.2	28	-12.2	2.5	157	-13.8	2.6
- 음향기기	269	14.7	2.1	23	15.2	2.0	122	-1.6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5	41.5	1.3	15	24.1	1.3	58	-18.4	1.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065	24.5	24.4	288	11.9	25.7	1,466	6.4	24.4
- 가정용 기기	1,182	22.5	9.4	94	-6.5	8.4	554	0.8	9.2
- 사무용 기기	49	23.1	0.4	6	41.3	0.5	28	29.8	0.5
- 의료용 기기	182	12.5	1.5	15	-2.3	1.3	69	-18.2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10.5	2.1	25	-0.1	2.2	102	-20.8	1.7
- 전기 장비	1,384	31.6	11.0	146	30.7	13.1	707	19.0	11.7
· 건전지 및 축전지	362	50.0	2.9	51	87.8	4.6	253	83.1	4.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8,213	20.9	100.0	650	-6.8	100.0	3,754	-0.6	100.0
○ 전자부품	5,857	22.7	71.3	488	-3.7	75.1	2,852	6.3	76.0
- 반도체	4,977	24.4	60.6	413	-4.7	63.6	2,408	6.3	64.1
- 디스플레이 패널	314	6.1	3.8	29	11.7	4.4	192	22.6	5.1
- 전자관	2	18.3	0.0	0	-6.6	0.0	1	-16.0	0.0
- 수동부품	223	24.7	2.7	20	0.9	3.1	100	-2.3	2.7
- PCB	123	13.3	1.5	9	-7.8	1.3	54	0.8	1.4
- 접속부품	212	17.2	2.6	17	-5.4	2.6	95	-7.5	2.5
- 기타 전자부품	5	11.1	0.1	0	2.3	0.1	2	13.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1	17.8	6.5	42	-7.4	6.5	267	4.3	7.1
- 컴퓨터	43	49.5	0.5	4	12.0	0.6	21	4.8	0.6
- 주변기기	488	15.7	5.9	39	-8.8	5.9	246	4.3	6.5
· 디스플레이장치	5	-34.3	0.1	0	-28.7	0.0	2	-42.1	0.0
· 프린터(부품포함)	63	12.3	0.8	4	-15.4	0.7	26	-15.9	0.7
· 보조기억장치	292	13.9	3.6	19	-27.1	3.0	126	-13.0	3.3
· 저장 매체	48	1.3	0.6	9	123.3	1.3	56	144.6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47.5	1.0	6	-5.3	0.9	36	5.3	1.0
○ 통신 및 방송기기	635	24.6	7.7	21	-53.5	3.2	125	-55.7	3.3
- 통신기기	575	28.5	7.0	21	-47.6	3.2	124	-50.4	3.3
· 유선통신기기	93	34.6	1.1	7	11.2	1.1	42	5.3	1.1
· 무선통신기기	482	27.4	5.9	6	-82.2	0.9	27	-87.0	0.7
- 방송국용 기기	27	8.3	0.3	2	-7.6	0.3	12	-10.1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33	18.5	2.8	16	7.7	2.5	113	15.1	3.0
- 영상기기	186	25.6	2.3	10	-9.4	1.6	77	0.0	2.1
- 음향기기	38	-10.4	0.5	3	3.9	0.5	21	21.0	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8	52.6	0.1	1	2.4	0.1	3	-8.5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58	10.8	11.7	83	-3.5	12.8	398	-13.0	10.6
- 가정용 기기	218	12.3	2.7	18	-4.1	2.8	99	-5.5	2.6
- 사무용 기기	4	-2.7	0.1	0	-24.1	0.0	1	-27.2	0.0
- 의료용 기기	136	20.5	1.7	13	0.2	2.0	53	-20.5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94	8.2	4.8	31	-16.5	4.8	139	-27.1	3.7
- 전기 장비	205	8.8	2.5	17	2.6	2.6	91	-2.5	2.4
· 건전지 및 축전지	74	4.2	0.9	6	-1.7	0.9	32	-3.1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52	4.5	100.0	1,473	6.4	100.0
○전자부품	1,013	19.3	35.6	88	-2.2	35.0	521	7.2	35.4
- 반도체	776	20.7	27.2	66	-6.6	26.1	389	5.1	26.4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3	-11.9	1.1	18	2.4	1.2
- 전자관	3	7.1	0.1	0	34.0	0.1	2	4.7	0.1
- 수동부품	38	21.3	1.3	3	8.1	1.4	21	13.7	1.4
- PCB	12	-2.2	0.4	1	23.9	0.5	7	13.5	0.5
- 접속부품	146	16.5	5.1	14	19.6	5.7	83	17.0	5.6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	39.2	0.1	2	39.5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33	4.4	13.2	197	3.1	13.4
- 컴퓨터	167	9.7	5.9	13	0.7	5.2	83	4.3	5.6
- 주변기기	222	8.9	7.8	20	7.0	8.0	114	2.2	7.8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2	30.4	0.7	9	21.4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	3.9	1.2	18	-1.5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4	-13.5	1.8	24	-11.4	1.6
· 저장 매체	72	18.5	2.5	6	8.3	2.4	38	5.5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5	26.8	1.9	26	9.0	1.8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32	1.1	12.8	188	-1.2	12.8
- 통신기기	347	11.9	12.2	31	10.8	12.5	183	7.2	12.4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16	9.3	6.3	89	6.1	6.0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14	1.2	5.6	84	-2.7	5.7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2	-2.6	0.9	14	2.0	0.9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8	31.1	3.4	50	25.7	3.4
- 영상기기	33	-1.7	1.2	3	2.2	1.0	16	-0.3	1.1
- 음향기기	36	-1.6	1.3	3	9.9	1.3	19	7.7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1	19.9	0.5	8	9.3	0.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90	11.3	35.6	516	8.2	35.1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4	5.4	5.7	84	2.9	5.7
- 사무용 기기	9	8.7	0.3	1	-1.0	0.4	5	8.0	0.3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5	8.5	10.1	146	6.0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6	3.1	10.2	145	-0.6	9.9
- 전기 장비	217	11.6	7.6	21	18.2	8.3	122	14.8	8.3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4	13.3	1.7	27	6.7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610	17.3	100.0	3,384	16.6	100.0
○ 전자부품	1,110	24.2	17.6	117	17.0	19.2	622	18.9	18.4
- 반도체	860	23.7	13.6	93	19.3	15.3	485	20.3	14.3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3	-20.3	0.4	14	-20.0	0.4
- 전자관	3	7.2	0.0	0	-13.6	0.0	1	-0.9	0.0
- 수동부품	42	39.5	0.7	4	18.8	0.7	26	34.4	0.8
- PCB	23	34.0	0.4	2	-1.7	0.3	13	17.9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4	15.9	2.3	78	15.8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1	21.7	0.1	4	39.9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53	20.3	25.1	809	12.7	23.9
- 컴퓨터	983	11.8	15.5	98	23.5	16.1	485	7.1	14.3
- 주변기기	587	18.0	9.3	55	15.0	9.1	324	22.2	9.6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10	43.2	1.7	63	42.3	1.9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2	6.8	2.0	73	7.3	2.1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9	-11.9	1.5	53	10.4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7	25.2	2.7	92	32.9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8	19.8	1.2	44	20.7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109	10.1	17.8	631	14.3	18.7
- 통신기기	1,139	16.9	18.0	105	19.2	17.3	613	24.1	18.1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43	15.4	7.0	238	16.4	7.0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59	14.7	9.6	354	22.4	10.5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11	16.5	1.8	61	11.4	1.8
○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45	36.3	7.4	258	31.6	7.6
- 영상기기	187	16.0	3.0	11	-24.2	1.8	77	1.0	2.3
- 음향기기	164	34.0	2.6	15	48.3	2.5	86	15.7	2.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11	31.4	1.8	53	15.7	1.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86	15.6	30.5	1,064	16.6	31.4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53	12.9	8.7	317	14.7	9.4
- 사무용 기기	28	15.2	0.4	3	20.6	0.5	17	27.8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4	6.6	5.5	193	11.5	5.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6	-0.2	4.2	147	1.4	4.4
- 전기 장비	651	28.5	10.3	68	27.2	11.1	380	24.6	11.2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20	51.0	3.3	109	46.3	3.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6,788	15.8	100.0	89,939	11.3	100.0
○ 전자부품	90,410	17.4	52.2	9,046	22.9	53.9	47,973	16.4	53.3
- 반도체	54,546	17.5	31.5	5,816	33.5	34.6	30,012	22.8	33.4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657	5.2	3.9	3,554	0.7	4.0
- 전자관	287	10.0	0.2	28	10.1	0.2	152	10.4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040	7.2	6.2	5,957	10.8	6.6
- PCB	3,336	11.7	1.9	341	26.7	2.0	1,804	25.7	2.0
- 접속부품	12,240	20.5	7.1	1,081	2.9	6.4	6,004	1.1	6.7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83	27.1	0.5	490	36.9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282	7.2	7.6	7,281	5.2	8.1
- 컴퓨터	1,040	4.7	0.6	100	6.2	0.6	494	1.5	0.5
- 주변기기	13,184	15.1	7.6	1,182	7.2	7.0	6,786	5.5	7.5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92	-17.7	0.5	512	-25.2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827	3.8	4.9	4,844	4.8	5.4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1	-27.8	0.1	68	-26.6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197	48.4	1.2	1,056	39.5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55	21.3	0.3	306	10.6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344	-44.7	2.1	2,038	-42.8	2.3
- 통신기기	4,131	9.7	2.4	343	-11.5	2.0	2,026	0.5	2.3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99	8.1	0.6	577	5.2	0.6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11	-62.4	0.7	793	-45.9	0.9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350	62.7	2.1	1,558	10.7	1.7
○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728	54.0	4.3	4,002	60.6	4.4
- 영상기기	2,379	23.1	1.4	159	-17.0	0.9	988	-5.9	1.1
- 음향기기	483	8.0	0.3	43	9.7	0.3	237	-4.8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177	-26.7	1.1	1,231	3.2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5,388	11.2	32.1	28,645	7.6	31.8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1,127	10.6	6.7	5,783	1.1	6.4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41	3.3	0.2	187	-6.1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666	15.5	4.0	3,441	7.2	3.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2,056	6.9	12.2	11,055	4.9	12.3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376	6.9	8.2	7,571	8.8	8.4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760	12.2	4.5	4,123	11.3	4.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18,139	30.0	100.0	98,699	18.0	100.0
○ 전자부품	47,567	30.0	27.4	6,029	59.7	33.2	30,434	44.8	30.8
- 반도체	37,305	31.7	21.5	4,877	66.6	26.9	24,457	49.9	24.8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98	21.4	1.1	941	15.7	1.0
- 전자관	127	6.0	0.1	5	13.9	0.0	54	-13.4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62	38.0	0.9	857	34.7	0.9
- PCB	1,620	24.4	0.9	166	21.3	0.9	948	23.7	1.0
- 접속부품	4,505	25.3	2.6	504	34.3	2.8	2,639	23.7	2.7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118	134.9	0.7	539	78.1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3,040	42.5	16.8	16,255	13.1	16.5
- 컴퓨터	16,259	-4.0	9.4	1,641	40.8	9.0	8,868	3.3	9.0
- 주변기기	11,795	7.7	6.8	1,399	44.5	7.7	7,387	27.6	7.5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202	26.1	1.1	978	8.1	1.0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405	31.0	2.2	2,311	21.5	2.3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72	25.8	1.5	1,409	15.2	1.4
· 저장 매체	1,570	-0.5	0.9	321	127.8	1.8	1,526	105.5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199	40.5	1.1	1,163	14.7	1.2
○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2,790	-0.8	15.4	18,053	-0.4	18.3
- 통신기기	33,546	16.5	19.4	2,752	7.5	15.2	17,884	8.0	18.1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762	13.0	4.2	4,550	13.7	4.6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1,823	-3.2	10.1	12,345	-1.7	12.5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299	42.5	1.7	1,561	17.9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323	27.1	7.3	7,005	14.1	7.1
- 영상기기	6,839	8.3	3.9	560	-9.5	3.1	2,917	-17.6	3.0
- 음향기기	3,276	3.7	1.9	334	21.4	1.8	1,733	7.6	1.8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168	14.2	0.9	963	-2.4	1.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4,957	18.3	27.3	26,951	12.3	27.3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508	1.2	8.3	7,541	-2.4	7.6
- 사무용 기기	726	0.0	0.4	63	17.3	0.3	383	2.0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674	12.4	3.7	4,010	10.3	4.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921	17.6	5.1	5,174	6.3	5.2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727	36.7	9.5	9,490	28.2	9.6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383	69.0	2.1	1,882	44.6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34	25.7	100.0	245	18.5	100.0	968	22.9	100.0
○ 전자부품	2,053	27.9	78.0	197	21.4	80.4	774	26.4	80.0
- 반도체	1,812	28.4	68.8	179	24.7	73.1	700	30.2	72.3
- 디스플레이 패널	102	22.5	3.9	6	-23.3	2.5	27	-20.4	2.8
- 전자관	0	10.4	0.0	0	-48.5	0.0	0	-10.9	0.0
- 수동부품	42	30.5	1.6	3	-4.8	1.3	13	5.1	1.4
- PCB	66	17.4	2.5	6	21.2	2.4	23	19.8	2.4
- 접속부품	30	35.7	1.1	3	15.1	1.1	11	22.7	1.1
- 기타 전자부품	0	24.1	0.0	0	21.6	0.0	0	19.6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6	14.0	9.0	20	9.0	8.1	78	9.8	8.1
- 컴퓨터	88	7.8	3.4	8	22.4	3.4	30	19.5	3.1
- 주변기기	148	18.0	5.6	12	1.0	4.7	48	4.5	5.0
· 디스플레이장치	7	10.3	0.3	1	31.5	0.2	2	3.8	0.2
· 프린터(부품포함)	3	24.0	0.1	0	32.4	0.1	1	19.7	0.1
· 보조기억장치	8	11.7	0.3	1	-6.2	0.3	2	0.4	0.3
· 저장 매체	106	15.1	4.0	7	-18.2	2.9	31	-9.5	3.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4	38.6	0.9	3	104.0	1.2	11	88.9	1.1
○ 통신 및 방송기기	127	16.0	4.8	12	24.9	4.9	46	26.8	4.8
- 통신기기	112	15.5	4.3	11	30.3	4.4	42	30.5	4.3
· 유선통신기기	78	17.3	3.0	7	28.1	3.0	29	25.9	2.9
· 무선통신기기	34	11.5	1.3	3	35.3	1.4	13	42.0	1.3
- 방송국용 기기	14	19.5	0.5	1	4.1	0.5	5	14.1	0.5
○ 영상 및 음향기기	83	31.6	3.1	5	-27.5	1.9	22	-15.6	2.3
- 영상기기	76	30.9	2.9	4	-31.5	1.7	20	-18.4	2.1
- 음향기기	6	42.8	0.2	1	25.8	0.2	2	21.3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6.3	0.0	0	45.5	0.0	0	18.8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34	22.6	5.1	12	11.9	4.7	47	14.0	4.8
- 가정용 기기	27	19.5	1.0	2	-1.6	0.8	9	6.9	0.9
- 사무용 기기	7	19.7	0.3	1	4.3	0.2	2	25.6	0.2
- 의료용 기기	7	14.0	0.3	1	7.0	0.2	2	15.7	0.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3	21.2	1.6	4	16.9	1.6	14	7.5	1.5
- 전기 장비	51	27.2	1.9	5	16.7	1.8	18	22.1	1.9
· 건전지 및 축전지	10	19.6	0.4	1	45.7	0.4	4	48.8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40	10.6	100.0	129	19.6	100.0	532	22.9	100.0
○전자부품	1,076	12.8	74.7	100	24.2	77.1	408	26.2	76.8
- 반도체	957	12.7	66.5	90	26.5	69.4	369	28.3	69.4
- 디스플레이 패널	19	-4.8	1.3	1	-29.3	0.9	5	-19.6	1.0
- 전자관	0	8.5	0.0	0	-26.3	0.0	0	16.7	0.0
- 수동부품	34	24.6	2.3	3	20.5	2.4	11	12.4	2.1
- PCB	36	16.3	2.5	3	22.0	2.6	14	25.8	2.5
- 접속부품	28	13.2	1.9	2	0.0	1.7	9	7.7	1.7
- 기타 전자부품	2	45.5	0.1	0	-11.3	0.1	1	6.0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6.8	6.4	7	18.5	5.8	31	20.8	5.9
- 컴퓨터	34	11.7	2.3	3	85.4	2.7	12	38.9	2.2
- 주변기기	59	4.2	4.1	4	-9.3	3.1	20	12.2	3.7
· 디스플레이장치	8	24.5	0.5	1	-9.4	0.4	2	11.3	0.5
· 프린터(부품포함)	4	-10.3	0.3	0	-25.9	0.2	1	-11.6	0.2
· 보조기억장치	12	8.2	0.8	1	-5.6	0.7	3	-18.3	0.6
· 저장 매체	27	-3.0	1.9	2	-4.8	1.4	10	23.5	1.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	18.1	0.5	0	-20.2	0.4	3	45.2	0.5
○통신 및 방송기기	84	1.4	5.8	6	1.2	4.8	27	3.3	5.0
- 통신기기	76	1.3	5.3	6	9.7	4.5	25	8.3	4.7
· 유선통신기기	24	4.5	1.7	2	10.4	1.7	8	7.4	1.6
· 무선통신기기	52	-0.1	3.6	4	9.3	2.8	17	8.8	3.2
- 방송국용 기기	5	4.4	0.3	0	-14.6	0.3	1	-1.7	0.3
○영상 및 음향기기	25	2.8	1.8	2	-12.1	1.3	8	8.3	1.6
- 영상기기	17	13.0	1.2	1	-20.6	0.8	5	1.9	1.0
- 음향기기	6	-3.4	0.4	1	9.8	0.4	2	10.9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28.6	0.2	0	-7.0	0.1	1	47.5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63	4.9	11.3	14	5.7	11.0	57	15.3	10.7
- 가정용 기기	40	9.0	2.8	4	11.6	2.9	14	15.5	2.7
- 사무용 기기	2	10.2	0.1	0	5.5	0.1	1	14.3	0.1
- 의료용 기기	15	-8.4	1.1	2	46.7	1.3	6	27.7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8	4.8	4.7	5	-7.8	4.2	23	9.7	4.3
- 전기 장비	37	7.1	2.6	3	10.0	2.6	14	20.5	2.5
· 건전지 및 축전지	12	11.7	0.8	1	15.3	0.9	5	29.0	0.9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p	2,867	-35.6	4,298	-74.9	63	-72.0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p		18,972	50.0	63,235	-4.6	3,107	-25.5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7월	227.7	273.4	25.3	27.8	132.6	146.2	51.7	66.2	83.4	101.8	151.1	180.8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230.0	288.9	22.2	29.5	127.8	127.9	52.4	66.9	104.8	129.1	162.5	189.7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0	295.1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9.3	151.4	180.8
3월	272.3	364.7	32.5	47.9	136.7	116.8	26.1	34.6	105.0	128.1	181.0	216.0
4월	229.5	309.6	27.8	42.0	128.7	111.1	30.8	40.2	87.0	105.8	153.7	179.1
5월	242.2	327.3	26.0	40.5	130.4	113.3	32.4	42.5	71.2	87.4	159.7	187.1
6월	257.5	350.8	20.4	32.8	124.5	109.6	30.7	40.1	73.6	91.0	148.7	177.2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7월	175.1	235.0	25.5	18.4	134.7	139.5	154.5	156.4	130.3	159.3	139.2	134.5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5	120.9	123.9	186.0	189.2	119.9	142.7	130.8	126.6
3월	197.0	275.9	37.8	45.8	138.1	141.7	187.2	192.0	154.5	184.2	150.7	145.9
4월	185.9	261.4	37.0	46.8	138.7	142.6	167.0	172.3	137.1	167.4	150.3	146.2
5월	196.6	277.7	38.2	52.0	136.2	143.6	158.3	163.9	142.6	176.4	141.6	139.7
6월	213.7	302.2	33.6	50.0	141.0	148.8	156.4	162.4	126.8	156.7	148.4	148.0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임진국
- ⊙ 과제 책임자 : 허창희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유영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